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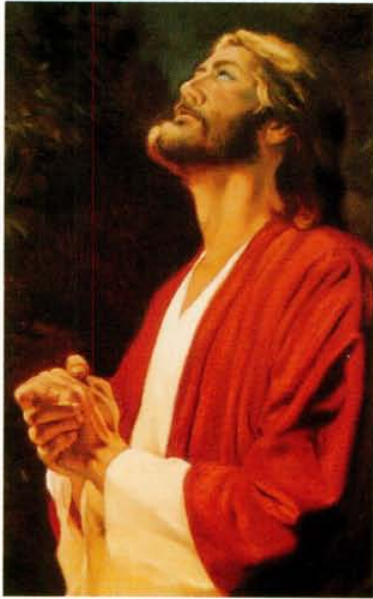
말씀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의 밤 12

1996

벌책 부록 : 어린이판





표지 설명

힝클리 대관장은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8쪽 참조)에서 "이 세상의 어떠한 교회도 이 교회... 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에 대해... 더욱 소리 높여 강하게 간증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라고 선포했다. 이번 호에서는 "그분은 살아 계시다!" (34쪽 참조)라고 외치는 전세계의 청소년들을 포함해 많은 글쓴이들이 구세주의 신성함에 대한 간증을 전하고 있다
앞 표지 그림: 로엘 브루스 베네트, 기도하시는 주님
뒤 표지 사진 촬영: 앨터스 포토 디자인사, 예수님의 탄생 장면: 제드 클라크, 별 장식

어린이란 표지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누가복음 2:11-12)
 온 세상에 기쁨을: 대관장단이 온 세상의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성탄절 메시지, 어린이란 6쪽 참조(사진 촬영: 디 켈리 옥든)

일반

대관장단 메시지: 감사는 구원의 원리임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2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8
기쁜 마음으로 베푸는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10
"다루기 힘든" 그 반! 네이더 스티븐스 팀스	16
선한 목자에 대한 고찰 호머 에스 엘스워스	18
불가리아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베스 데일리	26
크리스마스 외투 네임 워드헬드	30
가장 우선인 십일조 오스본 엔 스미스	48

청소년란

아빠의 노래 네티 현세이커	22
자신의 간증 리사 엠 그로버	32
그분은 살아 계시다!	34
불과 얼음의 땅 재닛 토마스	42

정기 특별 기사

애독자 편지	1
방문 교육 메시지: 반석이신 우리의 구속주	25

어린이란 (별책 부록)

물문경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심	2
온 세상에 기쁨을: 대관장단이 온 세상의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성탄절 메시지	6
이야기: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 켄 엠 스미스	8
뉴스 속의 친구들: 우리는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요	11
노래: 베들레헴 가는 요셉	
베시 순더스 스펜서와 아이 리드 패인	12
함께 나누는 시간: 순종이라는 선물 캐런 애쉬튼	14
심심풀이: 크리스마스 선물 포장지 도안 꾸미기	16

성도의 빛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 판 출판물임.

대편집장: 고든 비 헝클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사도: 정원화:보이드 케어 패커, 올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리셀 엠 빌슨, 말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블랜드, 조셉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올 줄랜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잭 에이치 고슬랜드
고문: 스펜서 제이 쿤다, 올 라이오널 캔드락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관리 책임자: 로널드 올 나이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켈리
그래픽 책임자: 올라 울 로이보그

편집스텝: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올 빌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미첼, 디앤 워커
편집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부장: 에리엔 마틴데일
제작보조: 베스 데일리

디자인스텝: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위시끼
미술 책임자: 스킵 벤 콰엔
디자인: 캐리 록
제작 부장: 제인 매 피터스
생산 관리: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안슨, 데니즈 커비,
매튜 에이치 맥스웰

구독 담당 스텝: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리슨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안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 권: 제 369호, 제 33권, 제 12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6년 1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서 원
편집인: 한상의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신광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1996년 재단 법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8/94 번역 승인-8/94 December, 1996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6992 320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일반인은 권당 500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빛 해외 구독 및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말린,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 price is \$9.00 per year.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old address and new one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 O.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016-0368, USA. Subscription Help Line: 1-800-453-3860, U.S. ext. 2947; Canada ext. 203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The SOUNGDO-UI POT, is published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함.
월 간-중국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통가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계 간-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러시아어

선교 사업의 조력자

리아호나(러시아어 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잡지는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을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지도자들의 기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읽습니다. 결국, 그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시이니까요! 특별히 번역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고 아름답게 번역하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펠릭스 판크라토프 장로
러시아 로스토프 선교부

기도에 대한 응답

제가 지닌 가장 큰 바램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봉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족들이 저의 이러한 바램을 지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부터인가 저는 제가 선교 사업을 갈 수 있을지, 또 가야만 하는지 의심하게 되었어요. 기도하고 경전을 읽은 후, 저는 상호부조회 개인 학습 지도서를 펼쳐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한 준비하는 것에 관한 공과를 공부했어요. 며칠이 지난 후, 저는 스페인어 판 리아호나 1995년도 12월호를 읽던 중에, "도밍고 리아오의 승리"라는 기사를 읽고 도밍고가 겪어야만 했던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가 경험한 것들이 많은 점에 있어 저와 비슷했거든요. 그가 보여 준 그 힘이 저에게 힘이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글들을 통해 제게 응답을 주시며 제가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룩사나 마가리타 갈레야노 사나브리야

퀘잘테피크 지부

엘 살바도르 산 살바도르 서 선교부

값진 진주

아 리아호나(포르투갈어 판)는 세계 하나의 "값진 진주"입니다. 아 리아호나는 그냥 단순한 잡지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입니다. 물론경에 보면, 베냐민 왕은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적어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너희 귀를 열고 듣게 함이며, 너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함이요, 너희 심령을 열어 너희 의사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배우게 하려 함이라." (모사이야 2:9)

저는 우리가 아 리아호나에 담긴 예언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 모두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장로
브라질 상파울로 북 선교부

마음과 가슴 속에

제 마음과 가슴 속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세주에 대한 간증을 얻기 위해, 그분께 제 신앙을 두고 경전을 읽으며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그를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탄생을 경배하고자 함께 모일 때, 그분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 우리의 삶이 진리와 행복으로 가득 넘치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달리아 이바라
에콰도르 과야킬



감사는 구원의 원리임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저는 신앙의 표시이며 구원의 원리인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지 못하되 다만 만사가 하나님의 주관아래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9:21) 이 성구에 의하면 “범사에 주 네 하나님께 감사하라.”(교리와 성약 59:7)라는 말씀은 사회적인 예절 이상의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구속력 있는 계명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 왔다는 이점 중의 하나는 상황이 지금보다 어려웠던 때를 자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역경을 통해 얻은 축복을 알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아온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의 기억은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진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던 대공황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가치관 중 한 가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절약하는 생활을 배워야



“그 [문둥병자]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사례하니”
(누가복음 17:15-16)

했습니다.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시기나 분노심을 자아내
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만든 뜨거운 빵과 오트밀,
시리얼 등, 우리가 받은 보잘 것 없는 작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한편, 제가 사랑하던 할머니, 메릴 캐롤라인 로퍼 핀린슨
이 농장에서 손수 비누를 만드시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비
누는 정제된 동물 기름과 나무재 등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
졌습니다. 비누는 매우 역한 냄새가 났고 벽돌처럼 단단했
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드럽고 향기로운 비누를 살만한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농장에는 더러워지고 땀에 젖어 세탁해야
할 옷들이 많았으며, 토요일 저녁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목
욕을 해야 했습니다. 그 비누로 목욕을 하고 나면 아주 말
끔해질 수는 있었지만, 몸에서 나는 냄새는 목욕을 하기 전
보다 더 지독했습니다. 지금은 어렸을 때보다 목욕을 자주
하는 편이라 부드럽고 향기로운 비누에 대해 감사하는 마
음이 매일 더해집니다.

요즘 시대의 악덕 중의 하나는 우리가 즐기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선물이 들어왔으나 그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교리와 성약 88:33) 사
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 시대를 설명하면서 말일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은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
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디모데후서 3:2)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악덕
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사람이 감사함을 느끼지 못할
때에 쉽게 이 모든 악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알았던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는 커다란 의
미가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
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를 만
났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
휼히 여기소서”라고 간청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
장들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
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
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
느니라 하시더라”(누가복음 17:11-19)

문둥병은 너무도 역겨운 질병이라서 모세의 율법에 따르
면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예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름끼치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고통을 함
께 나누고 함께 불행을 겪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레위기
13:45-46 참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는 그들의 절규가 구세주의 마음을 움직였음이 틀
림없습니다. 그들이 깨끗하게 되고 제사장들로부터 깨끗하다
는 승인을 얻어 사회에서 받아들여졌을 때 그들은 아마도
기쁨과 놀라움이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것처럼 놀라운 기적
을 경험하고 그들은 더할나위 없이 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베푸는 분을 잊었습니다. 그들이 어찌서
그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는지 이해하기가 어
렵습니다. 그와 같이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는 자기 중심적
인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교만입니다. 돌아와 감사를 드린
단 한 사람이 다름아닌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이 왜 중요
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와 같이, 요점은 사회
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흔히 더 큰
의무감과 숭고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원리로서 개인적인 감사 외에도 저는 우리가 누리
고 있는 많은 축복에 대해 가져야 하는 감사하는 마음에 대
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대에 교회에 속하신 여러분은 커다란 고통과 희생의
유산을 받은 많은 사람들과 친분 관계를 갖고 계십니다. 그
러한 희생은 또한 여러분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비록 여러
허물과 결점을 지녔지만, 지극히 숭고한 목적을 추구했던 사
람들이 물려준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란 모든 인류
가 마음에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감미롭고 평화로운 이
해를 얻으며, 이웃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성
스러운 의무이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정수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통신 수단은 인간 세상의 폭력
과 불행을 우리 가정 안에 홍수처럼 쏟아 붓습니다. 어떤 평
화롭고 영적인 소생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정과 성찬식과 성스러운 성전 등의 영적
보호 속에서 화평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

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처럼 평화스러운 환경 속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향집에 온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통가 왕국에 갔었습니다. 뮤티 스테이크 부장의 주재 하에 스테이크 센터에서 가정의 밤이 열렸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연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밤 모임은 통가 왕국의 전제 군주인 타우파아하우 4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왕과 그의 딸, 그리고 손녀딸들이 몸소 참석하였으며 그 밖에도 통가의 많은 귀족들과 외교 사절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노래와 시로 훌륭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국왕의 손녀 딸 가운데 한 명이 "할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해요."라는 제목의 독창을 불렀습니다. 존 손넨버그 장로와 저는 간단한 말씀을 부탁 받아 기쁘게 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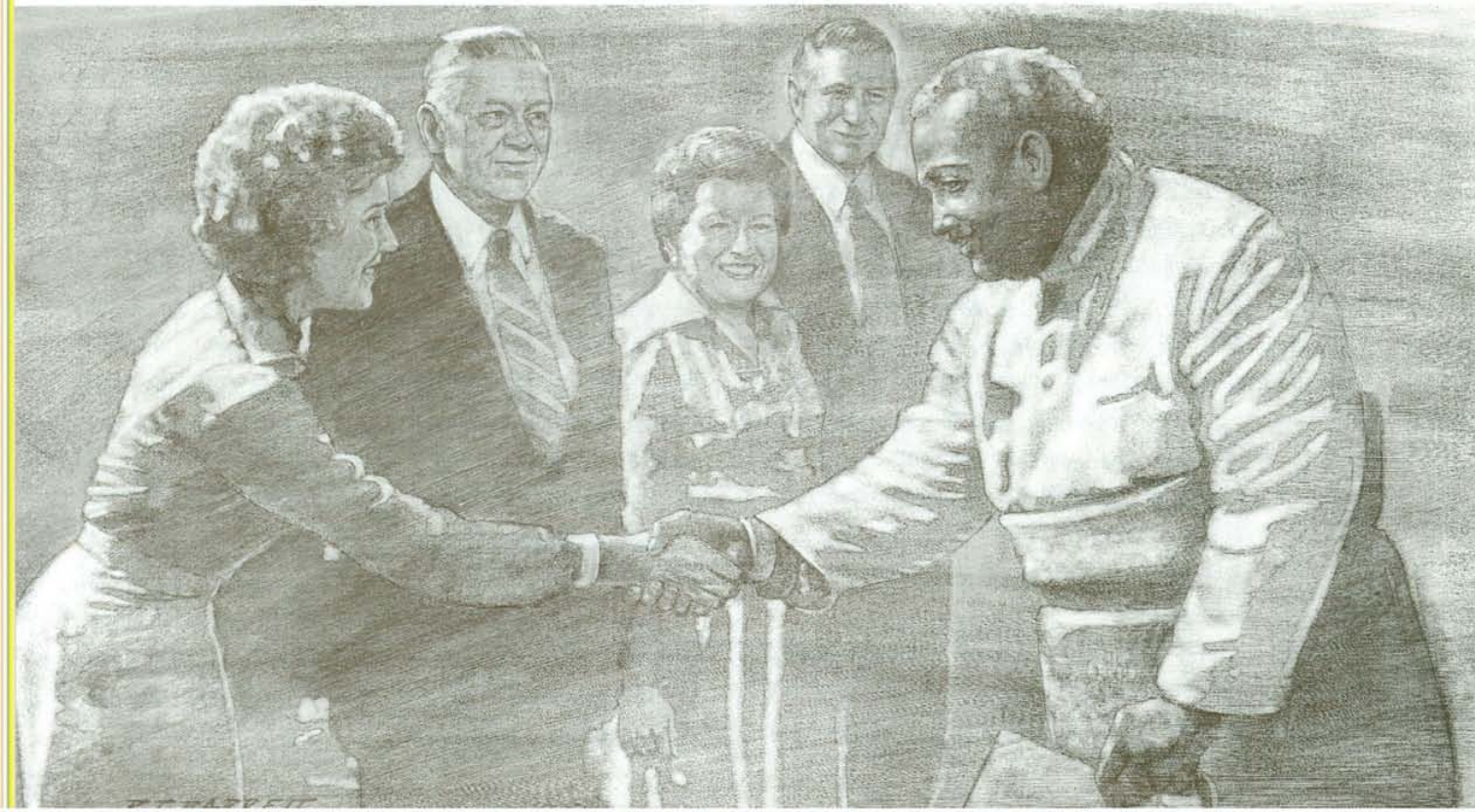
모임이 끝난 후, 국왕은 평시의 왕실 의전 규범을 무시하고 자기 백성인 교회 회원들이 보여 준 공연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우리들 부부와 함께 정중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사회적 의례는 여러 곳에서 지켜지지만, 친절의 표현은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는 예절입니다.

대립되는 성격상의 특질들은 서로 우리 영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이 결여되거나 사라지면 흔히 반란이 들어와 그 공백을 메웁니다. 사회적인 압제에 대한 반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깨끗함, 아름다움, 예절, 정직, 경건 및 부모의 권위에 대한 존중 등에 대한 반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훌륭해지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것은 또한 겸손함의 표출입니다. 그것은 기도, 신앙, 용기, 만족, 행복, 사랑, 복지 등과 같은 미덕이 성장하기 위한 토대이기도 합니다.

"쓰지 않으면 잃는다"라는 원리는 인간의 온갖 능력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지극히 자명한 이치입니다. 사용하지

가정의 밤 순서가 모두 끝난 후, 국왕은 평시의 왕실 의전 규범을 무시하고 자기 백성인 교회 회원들이 보여준 공연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우리들 부부와 함께 정중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않으면, 근육은 약해지고 기술은 퇴보하며 신앙은 사라지게 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짧은 말 속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가장 훌륭하고도 간결한 길이 있으며, 지속적인 우정을 위한 공식 및 개인적인 행복을 위한 모범이 들어 있습니다.”(완전에 이르는 길,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레트 출판사, 1973년, 254쪽)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요, 이 세상의 것이 저에게 더하여지리니 참으로 백배 이상 더해지리라.”(교리와 성약 78:19)

저는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년 전에 저는 밤 늦게 만원을 이룬 멕시코시티 발 쿨리칸 행 비행기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좌석들이 촘촘히 놓여 있었으며, 거의 모든 좌석은 선량한 멕시코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기에는 크고 작은 짐꾸러미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어린 아이들을 네 명이나 데리고 통로를 따라 걸어들어 오는데, 큰 아이가 네 살 정도 돼 보였으며 막내는 갓 태어난 어린 아기였습니다. 그녀는 기저귀 가방과 유모차, 그리고 다른 가방들을 옮기느라 무척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힘이 들어 울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좌석을 찾아내자 주변에 있던 승객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도와려고 일어났습니다. 승객들은 아이들을 사랑스럽고 부드럽게 보살폈습니다. 그 아이들은 온 비행기 안에서 이 승객에서 저 승객의 손으로 넘겨졌습니다. 그 결과 비행기 안은 애보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오래 걸리지 않아 자기를 안고 있는 사람들 품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갓난 아이를 품에 안고 인자하게 달래는 모습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여인은 어린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쉬운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 어린 아이를 저에게 건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을 이해하며 친절을 베푸는 것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배웠습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 분투하고 희생한 온 세상의 개척자들에 의해 나타난 신앙의 유산에 대한 감사의 빛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박해를 피해 얼마되지 않

는 소유물을 손수레에 싣고 피약벌이 내리찍는 평원을 지나고 눈으로 뒤덮인 산을 통해 평화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계곡으로 여행해 왔던 용기있는 개척자들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하겠습니까?

이 용감한 사람들 중에는 가족도 없이 여행을 했던 영국 소녀 엠마 배첼러도 있었습니다. 엠마는 윌리 손수레 부대와 함께 출발을 했는데, 그들이 포트 라라미에 당도하자 짐을 줄이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엠마는 그녀의 소지품을 모두 집어넣어 가지고 온 구리 주전자를 버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엠마는 지시에 따르지 않고 주전자를 길 옆에 내려 놓고서 그 위에 주저 앉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불과 수마일 뒤쳐져 마틴 부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마틴 부대가 이르렀을 때, 엠마는 폴고울리 가족과 함께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의 한 어린 아들이 오랜 뒤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엠마 배첼러 자매와 합류했다. 엠마는 젊고 튼튼했으며 우리의 음식에 더 많은 밀가루를 얻을 수 있게 했으므로 우리는 그녀와 함께 한 것이 기뻐다.” 아무렴 골리 자매가 아기를 낳자 엠마가 산파역을 했으며, 이들 동안 산모와 아기를 수레에 태워 간호하고 그 손수레를 끄는 것을 도와 주기도 하였습니다.

마틴 부대에 속해 여행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여생토록 불구로 만든, 발이나 귀, 코, 손가락 등의 동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자비를 누렸습니다. 당시 21세의 엠마는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혹독한 시련을 무사히 견뎌내었던 것입니다.

일년 뒤 엠마가 브리감 영을 만났을 때, 브리감 영은 그녀가 동상에 걸리지 않은 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엠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브리감 형제님, 저에게는 돌봐주거나 관심을 가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새비지 형제님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을 때, 그것을 어기고 나선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보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매일 제 뿔의 수레를 끌었습니다. 개울에 다다르면 저는 멈추어서 신과 양말과 걸옷을 벗어 손수레 위에다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수레를 개울 건너 편에 끌어다 놓고 꼬마 풀을 등에 업어 개울을 건넜습니다. 그런 다음 주저 앉아 모직 목도리로 발을 닦은 뒤 마른 양말과 신을 신었습니다.”

이 개척자들의 후손인 우리들은 조상들이 그토록 고생하여 수행했던 시온의 대업에 충실히 참여함으로써 그 분들에게 진 빛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성공적인 생활 방식의 표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축복을 향해 눈을 뜨게 됩니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부대관장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련해 주신 축복을 단단히 잡으십시오. 여러분이 할 일은 그것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처치 뉴스, 1969년 6월 14일, 2쪽)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저는 우리 모두가 감

사하는 마음을 키워 하나님께서 참으로 관대하게 내려주신 수없이 많은 축복들을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우리의 감사를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요즘 시대의 악덕 중의 하나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2.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며, 일종의 교만이다.
3.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훌륭해지기 위한 시작이며, 겸손함의 표출이고, 기도, 신앙, 용기, 만족, 행복, 사랑, 복지 등과 같은 미덕이 성장하기 위한 토대이다.
4.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성공적인 생활 방식의 표현이며,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축복을 향해 눈을 뜨게 된다.

이 개척자들의 후손인 우리들은 조상들이 그토록 고생하여 수행했던 시온의 대업에 충실히 참여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진 빛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습니다.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영감에 찬 권고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간증

“이 세상의 어떠한 교회도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즉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세상의 구속주라는 진리를 더욱 소리 높여 강하게 간증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분의 복음은 바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분이 모범으로 보여 주신 사랑의 영은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영입니다.”¹

이 세상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증오심을 파괴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형제간이며 그리스도의 구속이 효력이 있음을 믿게 된다면 이 세상에 훨씬 더 큰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좀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기 전에는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사업의 목적,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길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²

주님을 사랑함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단순한 권고도 아니고 단순한 소망도 아닙니다.

이것은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모든 종류의 사랑이 셋째로 하는 근원이므로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부과된 첫째되는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모든 덕과 모든 선함과 모든 훌륭한 성품과 의를 행하고자 하는 모든 충실함의 뿌리입니다. 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들께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랑이 시들 때마다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빛나는 커다랗고 영원한 사랑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분 아들의 사랑이 임재할 것입니다.”³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은 위대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 뒤따르지 않는 일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사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되돌려 받는데 어떻게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 것은 그에 따른 보상이 영원히 주어지므로 제가 아는 어느 것보다도 더 큰 투자가 됩니다.”⁴

마음의 사업

“이것은 지금까지 들은 그 어느 것보다 더 큰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떤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도 더 큰 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음과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가르치며 이 과정에서 영성을 길러야 합니다. 복음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물론 복음은 이성적이며 논리 정연하며 진리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일부 분일 따름입니다. 마음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⁵

우리의 사명

“모든 역사상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도 모든 세대, 즉 이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이 시대에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과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될 사람들 모두를 대신하여 일하도록 명령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를 위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우리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큼니다. 우리는 이 일을 진전시키려고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앞에 놓인 이 위대한 일을 거의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⁶

의설물

“의설물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십시오. 의설이란 독이 든 음료수로서 이것을 마시면 비참함과 부끄러움과 후회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주 예

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짚어진 여러분들이 덕성의 햇살 속에서 걸으며, 이렇게 할 때 나오는 힘과 자유와 확신을 누리기를 바랍니다.”⁷

홍콩 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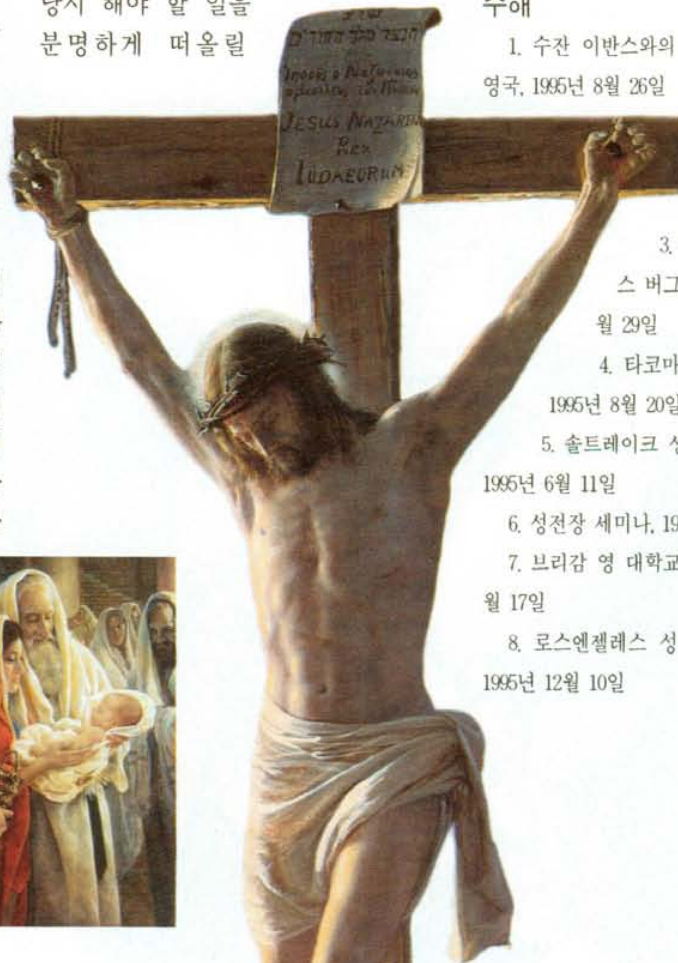
“우리가 이 세상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중국의 광활한 지역에서 주님의 성전을 갖게 된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이 성전은 중국이 홍콩을 인수하기 일 년 전 쯤부터 운영될 것이며, 그 지역과 그 곳에 사는 충실한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총관리 역원으로부터 아시아 관련 업무를 지명 받은 1960년 이래로 홍콩을 방문해 왔습니다. 저는 이 광대한 중국 영토에 있는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곳은 좀 색다른 종류의 성전입니다. 저는 제 생애에서

주님의 영감을 느낀 적이 있다면 성전을 세울 장소를 찾기 위해 그 곳에 갔던 때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떠올릴

수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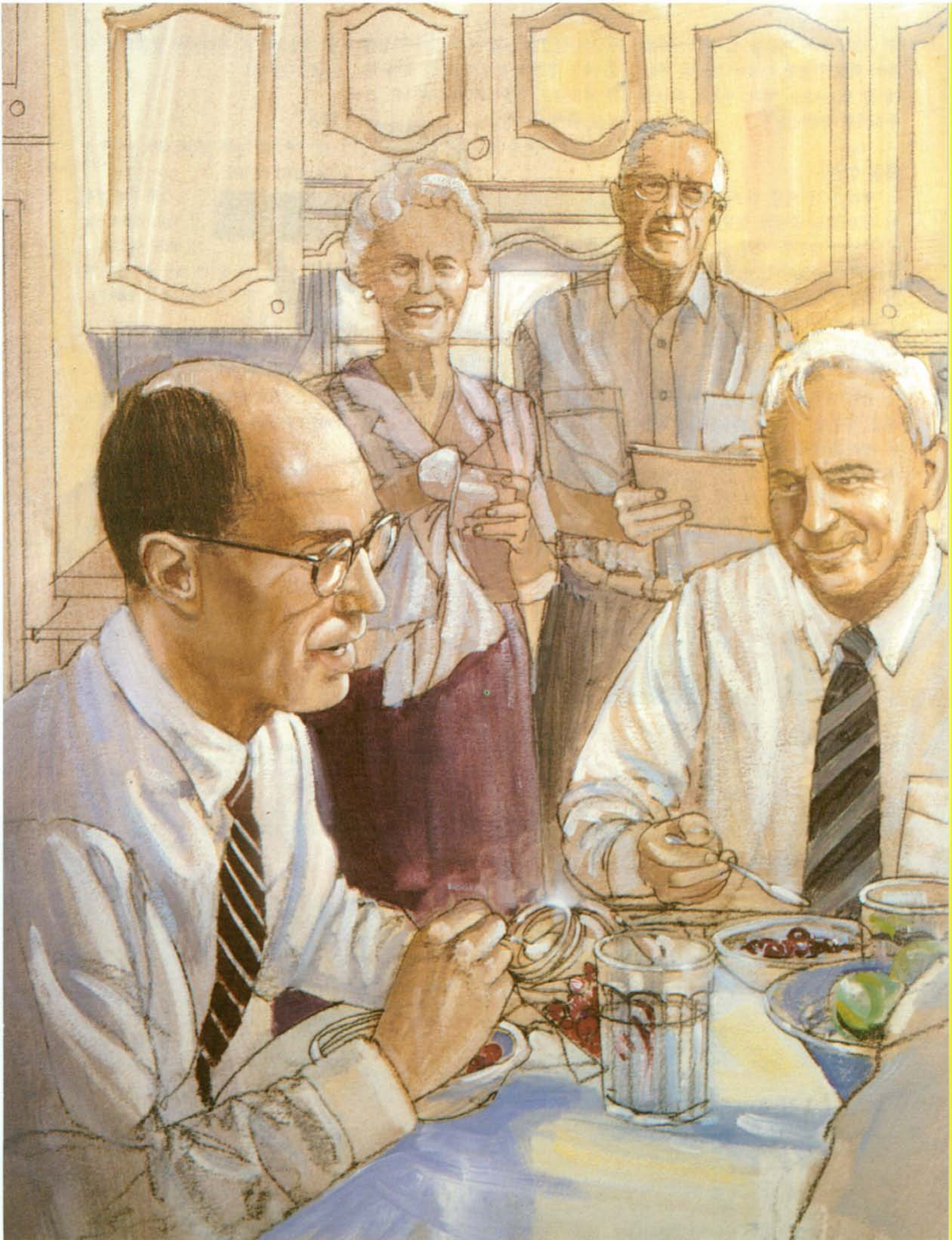
주해

1. 수잔 이반스와의 인터뷰, BBC 라디오 4, 영국, 1995년 8월 26일
2. 교회 직원 영적인 모임, 솔리홀, 영국, 1995년 8월 30일
3. 리스 대학 지역 대회, 렉스 버그, 아이다호 주, 1995년 10월 29일
4. 타코마, 워싱턴 주, 지역 대회, 1995년 8월 20일
5. 솔트레이크 성전 봉사자 영적인 모임, 1995년 6월 11일
6. 성전장 세미나, 1995년 8월 17일
7. 브리감 영 대학교 영적인 모임, 1995년 10월 17일
8. 로스엔젤레스 성전 봉사자 영적인 모임, 1995년 12월 10일



왼쪽(사진 촬영): 제드 클리크
오른쪽(그림): 칼 어민리히 블로오, 삽화기에
패물리삼, 덴마크 프레드릭스보르 성의
예배당에 원본 소장. 프레드릭스보르
박물관의 허락을 받아 사용함.
안쪽(그림): 그레그 게이 울슨,
여기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시몬





기쁜 마음으로 베푸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저는 언제나 남에게 선물을 잘 주는 사람이 되는 꿈을 꾸어 왔습니다. 누군가가 기쁘게 미소지으며 눈물까지 흘리며 제 선물을 열어 보는 것을 그려봅니다. 단지 선물이 아니라 주는 행위 자체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꿈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 잘 베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베푸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점 때문에 선물이 정말로 가치있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처럼 궁금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주위에는 언제나 남에게 베풀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남에게 베푸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은 없었지만, 저는 그들을 지켜보면서 베푸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배움은 많은 선물을 주고 받은 여러 경축일들을 꼼꼼히 생각해봄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받은 한 가지 선물로도 그러한 배움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라와 가까운 날도 아니었습니다. 여름 날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그날 오후 이른 시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버지와 형과 저, 이렇게 세 사람만이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간식을 준비하고 나서 손님들과 이야기했습니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두어졌는데도 전깃불을 켜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여셨습니다. 오신 분들은 캐서린 숙모와 빌 삼촌이었습니다. 빌 삼촌의 손에는 버찌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버찌는 빨갳다 못해 자주빛이 났고 병 뚜껑은 번쩍 번쩍 금빛이 났습니다. 삼촌은 아버지에게 “맛이 있을 겁니다. 후식을 드시지도 못했겠지요.”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후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우리 세 명이 식탁에 둘러 앉아 버찌를 접시에 조금 담아 먹는 동안, 빌 삼촌과 캐서린 숙모는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빌 삼촌은 “전화로 어머니 부고 소식을 알리지 못한 사람이 있지?”하고 물어 보시며 “내게 이름만 알려 주면 전화해 줄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알아야 할 친척 몇 분을 알려 주었고, 그 후 캐서린 숙모와 빌 삼촌은 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분들은 20분 이상 우리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선물, 즉 버찌 병에 초점을 맞추면 저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선물을 받았던 자의 관점에서 그 이론을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선물을 주고 받는 일은 언제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예는 어느 여름 날 저녁에 받은 그 버찌 선

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저는 빌 삼촌과 캐서린 숙모도 제가 느끼고 있던 그 감정을 똑같이 느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의 가슴 따뜻한 감동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너무 지쳐 있어서 음식을 별로 많이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집에서 만든 버찌 한 병이 잠시라도 우리를 다시 한 가족처럼 느끼게 해주리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버찌 그 자체보다 누군가가 제가 느끼고 있는 바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이 훨씬 소중했습니다. 저는 그 버찌의 맛을 기억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제 마음을 알고 걱정했던 것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그 선물이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 것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빌 삼촌과 캐서린 숙모가 마음에서 우러 나와서 선물을 주기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게 대가를 바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선물을 주는 자체로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셋째, 희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러나 그분들이 주어서 기쁨을 느꼈다면 그것이 어떻게 희생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희생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맨처음 캐서린 숙모는 그분의 가족을 위해 그 버찌 병조림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가족은 버찌를 좋아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후에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빌 삼촌과 캐서린 숙모는 제가

버찌를 먹는 편이 더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으로 그분들은 더 큰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제가 행복을 느꼈던 것입니다. 누구든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주는 사람이 어떻게 희생했는지를 알게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축복을 줌으로써 주는 사람도 희생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베풀기를 잘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저의 이론이 있습니다. 선물을 잘 주는 것에는 세 가지 요소, 즉 다른 사람의 느낌을 이해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며, 희생을 축복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보다 선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이론을 사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법을 익히려면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루 정도로 되는게 아닙니다. 대가 없이 주고 희생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데에도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이번 크리스마스부터는 선물을 훌륭하게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기에 따라 어떤 선물을 더 좋게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잘 알지 못하여 어떤 선물을 보잘 것 없이도 보게 됩니다. 선물을 주려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이론을 사용하여 올해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에 흠이 없기를 바라며, 우리의 진심이 얼마나 자주 이웃에게 전해지는지, 선물이 얼마나 자주 희생과 더불어 기쁘게 주어지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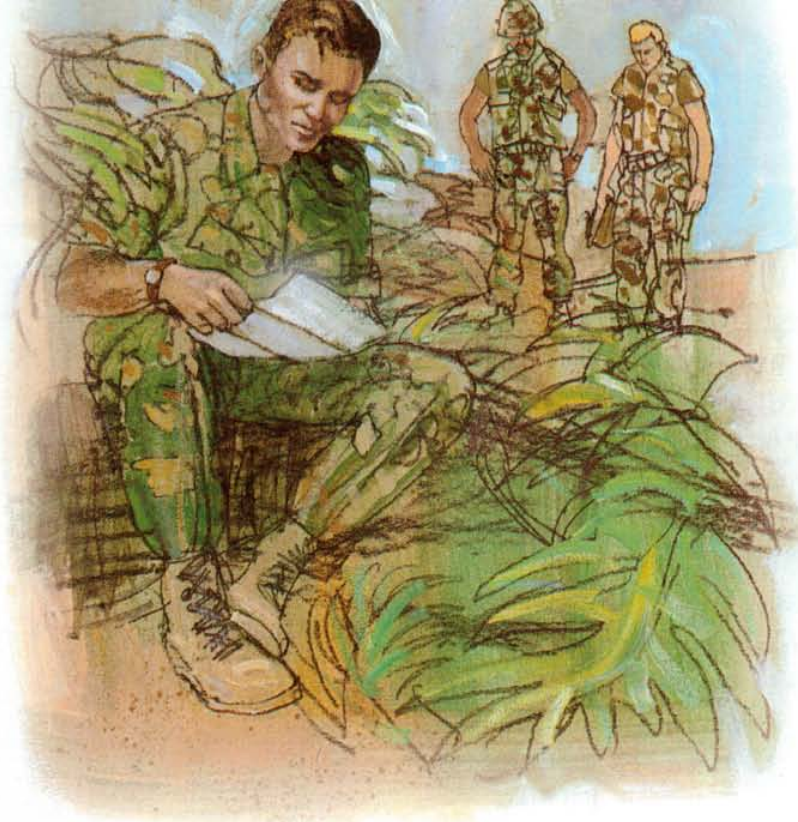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좀더 훌

륭한 선물 제공자가 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도 무언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크리스마스를 위해 훌륭한 선물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릭스 대학 종교반에서 저는 교리와 성약 25편을 가르쳤는데, 이 편의 내용에 따르면 엠마 스미스는 자신의 시간을 “많은 것을 기록하며 배울 시간이” (교리와 성약 25:8) 되게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반에서 뒤 쪽 세째 줄에 앉은 금발의 한 여학생은 제가 작문 기법을 부지런히 익히라고 권고하자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자매는 손을 들고는 “그 말씀은 제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 제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 외엔 글을 쓸 일이 없을 것이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모든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한 젊은이가 일어났습니다. 그 학기 중 별로 말이 없었던 그는 다른 학생들보다도 나이가 좀 많았으며 수줍어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는 말해도 되겠는지 물은 다음 조용한 음성으로 베트남에서 겪은 전쟁 경험에 관해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편지를 받으러 가기 위해 총을 놓아두고 영내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편지를 손에 쥐었을 때, 군대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급속히 습격하는 수많은 적군들과 교전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싸우며 뒷걸음질을 쳐서 겨우 자신의 총을 잡게 되었습니다. 살아 남은 병사들과 함께 그는 적군들을 몰아냈습니다. 부상한 병사들은 후송되었습니다. 그는 살아 있는 병사들과 죽은 병사들 틈에 앉아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의롭게 생활하면



베트남에서 복무하던 한 젊은 군인은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그가 의롭게 생활하면 살아서 돌아오리라는 확신을 주는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글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 편지는 제게 경전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오리라는 확신을 주는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글을 보냈습니다. 저의 반 학생들에게 그 청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편지는 제게 경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그러고 그는 앉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현재 자녀가 없다면 언젠가는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어느 때 어디선가 매우 큰 위협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까? 대가없이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보내길 간절히 원하는 편지를 쓰는 데 뭐가 희생되는 걸까요? 우편 배달부가 오기 한 시간 전에 그런 희생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일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만일 여러분이 자녀를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을 느끼며 그들에게 필요할 편지를 생각하면 희생처럼 보

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꼭 주고 싶은 선물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선물을 주려면 좀더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감독으로 봉사할 때 그런 선물이 당장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제 앞에 와서 앉더니 그가 저지른 잘못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아버지가 되어 자녀를 두고 신권을 사용하여 자녀와 함께 영원히 인봉되고 싶다는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와 회개의 고통이 크리라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내가 잊지 못할 말을 남겼습니다. "감독님,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게 필요한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슬픔을 느꼈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었으나 여러 달 동안 고통스럽게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어느 곳에선가 그 학생이 이제는 신권을 가진 아버지가 되어 자신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영원한 소망과 지상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가족에게 멋지게 포장한 모든 종류의 선물을 주겠지만 오래 전 제 사무실에서 시작했던 선물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소망해 왔던 자녀의 필요성을 느꼈기에, 이른 나이에 필요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만과 게으름과 무감각을 극복했으며, 이제는 그것이 희생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오래 전에 주어진 선물 덕분에 그런 선물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아들을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속죄라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가치를 지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선물을 값없이 우리 모두에게 기꺼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요한복음 10:17-18)

저는 우리가 무한한 희생을 통해 주어진 그 선물을 받아들일 때 그 선물을 주신 분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누가복음 15:7)

만일 여러분도 저처럼 이 말씀에 감

명을 받는다면, 구세주께 선물을 바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것 같지 않습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는 아직도 우리 모두가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돌아오길 그분께서 얼마나 바라시는지,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 하루나 단 한 해의 성탄절에 그러한 선물을 그분께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릴 수는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미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해도 아직 줄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은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구세주의 속죄라는 선물을 받아들였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표시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 사람이 기꺼이 베풀고자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활을 정화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더 잘 알게 되며, 더욱 관대해지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더욱 기쁘게 나누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구세주께서 그분께로 나아 온 사람을 묘사하시는 데 선물의 예를 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34-36, 40)

그리고 저는 그것이 훌륭한 선물을 받아서 생기는 가장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잘 베풀기를 원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선물에 의해 평생 동안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와 같은 많은 선물들이 오래 전에 주어졌습니다. 곧 다가올 12월 23일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생일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재능과 생명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시켰습니다. 저의 선조들은 고향과 관습을 떠나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그런 일은 그 분들보다는 저를 위해서 일어난 일 같습니다.

그러면 성탄절 기간에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선물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태복음 10:8)

저는 우리가 대가 없이 주기를 기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강요당한다는 느낌이나 대가를 기대하는 마음없이 베풀기를 바라며,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희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를 기원합니다. □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어느 곳에선가 가족에게 멋지게 포장한 모든 종류의 선물을 줄 아버지가 있겠지만, 오래 전 제 사무실에서 시작했던 회개의 선물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루기 힘든” 그 반!

네이더 스티븐스 팀스

뫼!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나더러 다루기 힘든 저 십대들 반을 가르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감독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저의 남편은 군 복무 중에 있었고 저는 말기 암 환자인 제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친정에 와 있었습니다. 저에게 대학 전인 개구쟁이 두 아이에다 갓난 아기도 있었고, 거기에도 날이라도 추워지면 그렇지 않아도 석탄이 많이 드는 낡은 난로에다가 더 많은 석탄을 손수 삼으로 퍼 넣어야 했으며, 할머니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 또 하나의 책임을 더 받아들이는 것이 실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주일학교 16반에 대해 모든 것을 들은 바 있는 저는 집에 오면서 내내 울었습니다. 하지만 감독님은 감독단이 금식하고 기도한 결과 “주님께서 저를 보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처음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기도하면서 구세주께서 저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위해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반을 가르치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그 부름은 힘겹게 보였지만 저는 태도를 바꾸고 그 일에 착수하였고 곧 제가 가르칠 그 주일학교 반의 십대들을 이해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그들

각자를 알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저는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로 행복하질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저는 거실의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혼자 앉아 제 어린 아들을 위해 좀처럼 잘 맞추어 지질 않는 장난감 기차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밖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고 문득 말할 수 없는 적막감이 온 몸을 휩쌌습니다. 저는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문제들을 잘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해 왔지만 오늘 밤엔 남편조차 아득히 저 먼 곳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저에게 지워진 짐들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서서히 죽음을 마주하고 계신 할머니를 지켜 보는 것, 어린 것들을 돌보고 추위에 견디며, 난로에 석탄을 삽질해 넣고 아들에게 줄 기차를 조립하기 위해 애쓰는 일 등이 모든 것들이 내 능력 밖의 일같이 보였습니다. 저는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머금으며 주님께 저의 이 짐들을 떠맡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이 늦었는데 누구일까 의아하게 여기며 문을 열어 보니 문 밖에는 제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반의 청남들이 눈을 뒤집어 쓴 채 서 있었습니다. 썰매를 타고 있던 그들은 우리 집의 불빛을 보고 크리스마스 인사를 전하고자 들렀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안으로 들어 오게 하여 뜨거운 초콜릿과 파이를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금세 기차를 조립해 주었으며 함께 크리스마스 선물 포장도 끝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청남들은 한 명씩 저를 꼭 껴안으며 좋은

교사요 친구가 되어준 저에 대해 감사를 표했으며 떠나기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가로등 아래로 내려가는 그들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저의 짐이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그들을 제게 보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렸습니다.

몇 주 후, 할머니는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여러 날 밤을 보내야 했는데 이는 할머니와 함께 하는 마지막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주일학교 청녀들이 교대로 제 아이들과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어떤 청녀는 제가 쉬 수 있도록 매일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와서 우리 가족의 저녁을 지어 주었습니다. 청남들은 석탄을 넣어둘 광을 만들었고 제가 더이상 석탄을 나르지 않아도 되도록 자동 운반 장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낡은 난로를 손보며 모든 힘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이 어린 청소년들은 각자 저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5월에 돌아가셨고 남편도 마침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의 그 “다루기 힘든 십대들” 반이 저를 도와주었던 그 겨울 이후 수년이 지났습니다만 앞으로 저의 제가 배운 그때의 교훈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으며 우리의 봉사로 얻는 축복은 우리의 노력을 훨씬 능가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

크리스마스 전날 밤, 제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16반의 청남 세 명이 와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갑자기 저의 짐이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선한 목자에 대한 고찰

호머 에스 엘스워스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자주 떠올립니다. 목자의 장면은 실로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과 보살핌으로 모든 자녀들을 지켜 주고 계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또한 그분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좋은 목자라는 비교될 수 없는 신성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여 그분께로 돌아가게 하셨음을 상기하도록 우리를 도와 줍니다.

경전의 곳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지상에서의 사업과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나타내 주는 상징들을 볼 수 있으며, 목자와 양떼에 관한 여러 성구들을 보면 확실한 상징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 상징들을 자주 사용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선한 목자

인간들에게 그의 사명을 알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선한 목자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다음과 같이 밝히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한복음 10:11) 제 양을 가진 목자는 양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을 위해 목숨을 잃는 위험도 감수할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실제의 양치기는 제 양을 보살피듯 진

정으로 양을 돌보는 자가 아니요, 단지 샅을 받고 양을 돌보아 주는 자에 불과합니다. “샅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헤치느니라”(요한복음 10:12)

이것은 아마도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와 양을 늑탈하고 헤치는 사탄이나 이리에 대한 비유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샅군은 그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굴복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구세주께서는 자신이 선한 목자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분의 대속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구세주께서는 이 대속이 그를 통해서 있으며 그를 통해서만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 시대엔 두 종류의 양 우리가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나무 가지와 밀짚으로 대들보를 덮은 큰 건조물이 사용되었고 여름과 봄에는 지붕이 없는 큰 울타리 안에 마을 전체의 양들을 모두 넣어 지키게 했는데 이 울타리 벽은 약탈자들이 들어 오지 못하도록 아주 높게 쳐져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목자들이 각자 자기네의 양떼를 큰 우리로 데려와 한 사람이 밤새 그 양들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은유법을 사용하여 자신이 밤에 양들을 돌보는 바로 그 목자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양떼

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모르고서는 그 우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실로 문지기이신 “주께서는 그 곳에 종을 두시지 아니하”(니파이이서 9: 41)입니다.

목자의 양떼

또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구세주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감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찾아 불러내는 참 목자가 바로 주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요한복음 10:3)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저는 우리가 개를 부를 때와 마찬가지로 휘파람을 불어서 자기 양을 부르던 한 어린 소년을 본 적이 있습니다. 2년 동안 그 곳에서 지낸 제 사위의 말을 들어 보면, 어떤 양치기는 자기네 양들과 너무나 친하여 문자 그대로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은 알아듣고 무리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양의 성질을 잘 아셨던 예수님은 그의 우리에게 속하지 않고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들의 특성을 설명하시려고 양들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나오거나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왜 안식일날 소경을 치료했느냐고 바리새인들이 구세주께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긴 토론 후에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 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요한복음 10:1-5)
 구세주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부당하게 죄인 취급을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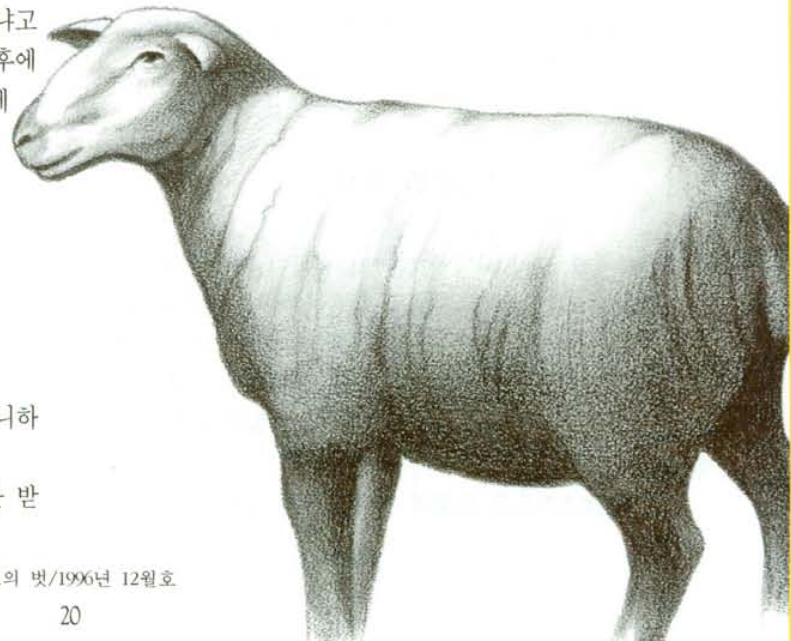
아오던 소경이 이제는 선한 목자의 우리에서 피난처를 찾았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 면에서 바리새인은 염소와 같았습니다. 양과 염소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우리들도 많지만 양과 염소는 매우 다르며 함께 풀을 잘 뜯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치기들은 염소들이 온갖 말썽을 피우기 때문에 양을 더 좋아합니다. 유순하며 천천히 걷는 양은 순종도 잘합니다.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염소는 이러한 양과는 다릅니다.

목자의 사랑

구세주께서는 또한 모든 인간의 가치에 대한 깊은 관심을 양을 예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또한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목자의 보살핌없이 산에 방목되어 있는 양들은 온갖 어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양들은 대부분 무리를 따르지만 목표 없이 방황하거나 약탈자에게 자신을 노출시키는 일부 양들



은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는 목자를 따르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도 양을 보살피는 사람이 없다면 약탈자가 나타나 그 양들을 해치거나 죽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제사들에게서 버림 받고 외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된 뒤에는 곧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를 자들만을 인도하기 위해 양떼,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보내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따를 자들이 소수에 불과하리라는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구세주께서 지상에 계시던 시기에 양떼는 여러 가족들의 것을 합친 수천 마리 양들로 큰 무리를 이루어 몇 명의 목자들이 돌보았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양떼에게 더 안전하였으므로 사람들은 큰 양떼 무리 속에 자기네 양들을 넣기를 선호했습니다. 적은 무리는 보통 한 명의 목자가 지키게 됨으로 강도의 습격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컸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분께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목자가 여럿 있는 수천 명의 무리가 아닐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들이 단지 한 명의 목자로부터 보살핌을 받게 됨을 보셨을 것입니다.

목자의 부름

구세주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부름을 줄 때에도 양을 비유로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요한 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그의 사도들에게 어느 특정 지점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시킨 대로 하여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들과 함께 조반을 취하신 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했다. “주여 그러하외다.”

그런 다음 세 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명하셨습니다.(15-17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되어 있는 그 시점에 베드로에게 지상에 있는 양떼의 우두머리가 되도록 요청하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베드로의 새 일이 구세주의 무리에 있는 양들을 구하는 사업임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의 비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대속에 대한 배경을 명확히 전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매 유월절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된 것을 기념하여 먹는 가족 식사의 일부로서 흠없는 양을 잡았습니다. 이처럼 미리 선정된 수양은 전 가족이 보는 앞에서 희생되어 그 피는 현관 문에 뿌려졌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어린 양은 아무런 죄도 없으면서 우리를 죄의 굴레로부터 구해 주려고 대속하신 구세주를 상징하기에 적합합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한 이디오피아인은 다음과 같은 이사의야의 글을 읽습니다.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디오피아인이 빌립에게 이사가야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묻자 빌립은 예수님에 관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양의 상징은 양에 대해 잘 알고 진정한 의미에서 구세주의 겸손함과 인내심과 온유함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비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토론이 있은 후, 이디오피아인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34-38절 참조)

경전에서 의 양과 목자에 대한 성구들은 구세주와 그의 지상에서의 사명에 대해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이들 성구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사명의 본질과 사도를 부르는 방법과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의 관심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

아빠의 노래

네티 현세이커

그림: 키스 라슨

그 해의 크리스마스를 결코 잊지 못할 것 같다. 부모님의 슬하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모두 크리스마스 직후에 내가 선교 사업을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귀환 후에는 결혼할 것이고, 그후부터는 내 자신의 단출한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물론,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긴 하겠지만, 크리스마스를 몇 주 앞두고서부터 빵을 굽고, 밤새워 캐롤을 부르고, 긴 양말을 걸어 놓고, 그의 다채로운 활동들을 하던 그 “절기”를 결코 다시 함께 맞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어느덧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곧 집을 떠나게 될텐데, 그러한 생각을 하면 두려워지기까지 했다.

나는 그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오기를 수개월 전부터 손꼽아 기다렸었다. 실제로 크리스마스 전주는 너무나 멋있었다. 집 모양의 생강빵도 만들고, 구세주의 탄생도 재현해 보며,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아늑한 우리 집 구석마다 배어 있는 듯한 비밀스럽고 놀라운 추억들을 되새겨 보는 등, 매순간 행복을 맛보았다. 것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제 이것이 집에서 맞는 마지막 크리스마스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우리 집에는 전통적인 명절 행사가 많이 있었다. 그 가운데 자녀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가장 고대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아빠가 막내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들을 한 명씩 아래 층 거실로 데려가셔서, 낡은 흔들 의자에 앉아 우리를 안으시고는, 특별히 크리스마스 노래를 불러 주셨기 때문이다. 해마다 같은 노래를 부

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노래를 외우다시피 했다. 그 노래의 내용은 크리스마스 아침에 춤추는 장난감과 천사들에 관한 것이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어두운 방 안에서 아빠의 품 안에 안겨 있는 동안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쨌든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아침이 가져다 주는 모든 즐거움들이 나타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몇 살이 되었든지, 얼마나 컸든지에 상관없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언제나 아빠는 흔들 의자에 앉아 우리를 안아 주셨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나는 아빠가 차례로 동생들을 아래층으로 데려가는 것을 지켜 보았다. 내 위의 언니는 선교 사업을 나가고 없었기 때문에 그해에는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맏딸이었다. 아래층 거실에서 아빠가 동생들에게 불러 주시는 똑같은 노래가 계속 들려 왔다. 이윽고 내 차례였다. 아빠를 따라 아래층 거실로 내려갔다. 아빠는 그 큰 흔들 의자에 앉아 양팔을 벌리셨다.

“제가 아직도 아빠 무릎에 앉기를 원하세요?” 하고 여쭙었다.

아빠는 싱긋 웃으시면서 “물론” 하고 대답하셨다. 감사한 마음으로 난 아빠의 무릎에 앉아, 양 무릎을 턱에 괴고는 아빠에게 꼭 안겼다.

“아빠가 이렇게 안아 주시는 것도 오늘 밤이 마지막 이에요.” 하고 내가 말했다.

“나도 알고 있단다.” 아빠는 나지막한 음성으로 말씀 하셨다.

늘 들어오던 그 노래의 몇 소절을 들으면서, 나는 크





리스마스 이브 때마다 이 노래를 들었던 지난 해들을 돌이켜 보았다. 불현듯 이대로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척 따스하고 안락한 기분이 들었다. 장차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착잡한 마음에서 울기 시작했다.

이 노래가 끝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빠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아가야, 깊이 잠든 동안 하늘의 축복이 내리기를.

깨어날 때 춤추는 장난감, 막대 사탕.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너에게 내리기를.

네가 살아가는 동안

나 너 사랑하듯

천사들이 지켜봐 주기를 간구하노라.

아가야, 잘 자거라.

해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노래를 들을 때면 나는 다음 날 아침에 무엇을 갖게 될까 하고 생각하곤 했었다. 하지만 이제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아빠가 인생과 장차 이를 날들에 관해 노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닳고 깨어지는 장난감이 아니라, 지금은 아직 전혀 모르고 있지만 생애의 여정을 살아 가는 동안 갖게 될 기쁨을 노래하신다는 것을. 이날 밤 아빠의 노래하시는 목소리에서 천사들이 이 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아빠가 나와 함께 하지 못할 때에도 나를 지켜봐 주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아빠의 심정을 느낄 수 있었다.

아빠의 노래가 끝났을 때, 눈물이 나의 뺨 위에 흘러 내렸

다. 아빠와 나는 어둠 속에서 비치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을 바라 보았다. 노래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렇게 흔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빠의 품에 안겨 있는 동안, 하늘에서의 마지막 날 밤, 다시 말해 우리들 각자가 이 지상으로 내려 오기 전날 밤은 어떠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품에 꼭 안으시고 지상에서 얻게 될 온갖 즐거움들에 관하여 말씀하셨을까? 그때 우리는, 비록 지상 생활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커다란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있기를 바라며 울지 않았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 우리에게 노래를 들려 주신 다음에도 오랫동안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는, 천사들에게 우리가 지상 생활하는 동안 우리를 잘 보살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행복하게 지내며,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라고 지시하셨을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지상의 아빠 품에 안겨,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위안을 느꼈다. 아빠는 장차 내가 시련을 겪을 때마다 언제나 나의 곁에서 도와 주실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따라서 나의 앞길에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나는 아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나를 영원한 본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날 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또한 “나 너 사랑하니, 아가야, 잘 자거라”하고 노래 부르심을 느꼈다. □

성도의 벗 1996년 색인

본 색인은 주제 색인과 저자 색인으로
나누어져 있다.

주제별 색인

7

가나

가나: 신앙의 가족, 돈 엘 시얼, 10월호, 34쪽

가르침(교회 교육 기구, 교육 참조)

가르치기 위해 준비함, 레이 엘 라슨, 9월호, 26쪽
"다루기 힘든" 그 반!, 네이더 스티븐스 팀스, 12월호, 16쪽

봉사하도록 부름 받음, 토마스 에스 몬슨, 7월호, 43쪽
영적인 산꼭대기, 잭 에이치 고슬린드, 1월호, 9쪽
훌륭한 개념, 델린 에이치 옥스, 1월호, 25쪽

가정 복음 교육

안델린 형제와 시소 로버트 쇼고, 3월호, 28쪽

가정의 밤

도움의 손길, 보이 헨슨 켈리, 2월호, 45쪽

가족 관계(결혼 부모의 역할 참조)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 1월호, 102쪽: 6월호, 10쪽

간증의 유산, 헨리 비 아이어링, 7월호, 62쪽

단 둘이 보내기, 트레이시 배런드, 2월호, 42쪽

도움의 손길, 보니 헨슨 켈리, 2월호, 45쪽

신권의 축복, 로버트 디 헤일즈, 1월호, 32쪽

아빠는 이런 말을 쓰실까?, 캐롤리 에이치 스미스, 9월호, 31쪽

아빠의 노래, 네티 현세이커, 12월호, 22쪽

영원과 오늘을 위한 닷, 보니 디 파킨, 7월호, 90쪽

전략, 더럴 에이 울시, 1월호, 84쪽

"제가 가겠습니다",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1월호, 43쪽

제이 이 켈슨 장로, 9월호, 어린이란 6쪽

조각, 에이 조우 잭슨, 4월호, 42쪽

주님의 상에 와서 먹음, 엠 러셀 벨라드, 7월호, 80쪽

코바를 뜨개 담요 밑에서, 잔 머레이 스미스, 11월호, 32쪽

키 올려 재기, 로이드 뉴웰, 9월호, 46쪽

평안을 지님, 테머러 리덤 베일리, 11월호, 26쪽

한 그릇의 땅콩, 로널드 더블류 록, 8월호, 48쪽

가족 역사(일지, 성전과 성전 사업 참조)

과거를 위한 달력, 데비 데이빗슨, 5월호, 어린이란 5쪽

기이한 일, 마르셀리노 페르난데스 레블로스 수아레스, 11월호, 22쪽

기적같은 개종, 저메인 에밀리 오카트래리-게이, 10월호, 26쪽

나의 가족 나무, 5월호, 어린이란 8쪽

엘리아의 영, 고든 비 힝클리, 11월호, 18쪽

장애물과 신앙과 기적, 토마스 에스 몬슨, 6월호, 18쪽

간증(개심, 신앙 참조)

간증의 유산, 헨리 비 아이어링, 7월호, 62쪽

그 분은 살아 계시다!, 12월호, 34쪽

"그 책은 버리지 마세요!", 아파레치다 제미네스 데 올리베이라 파소스, 11월호, 8쪽

나는 그 느낌을 알고 있다, 아론 리 월, 5월호, 28쪽

나의 아들이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호, 40쪽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11월호, 10쪽

빛과 진리의 창, 조셉 비 위스런, 1월호, 75쪽

선교 사업과 성전과 청지기 직분에 관하여,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51쪽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됨, 8월호, 25쪽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 아침,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65쪽

자신의 간증, 리사 엠 그로버, 12월호, 32쪽

감사

감사는 구원의 원리임, 제임즈 이 파우스트, 12월호, 2쪽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캐런 에쉬튼, 2월호, 어린이란 12쪽

개인의 가치

좋은 영향을 준 편지, 제니 브라이너, 10월호, 11쪽

개심(신앙, 간증 참조)

가족 모두가, 로리 리브시, 10월호, 12쪽

거듭남과 헌신, 더블류 맥 로렌스, 7월호, 74쪽

기적같은 개종, 저메인 에밀리 오카 트래리-게이, 10월호, 26쪽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코로 오니아부치, 2월호, 21쪽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샌티아고 마케이스 페레이스, 5월호, 25쪽

요셉의 아들 요셉, 제이 토트 마틴과 리사 에이 존슨, 9월호, 42쪽

저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1월호, 25쪽

회개 시간, 크리스토퍼 챗윈드, 11월호, 24쪽

개척자(교회사 참조)

감사는 구원의 원리임, 제임즈 이 파우스트, 12월호, 2쪽

암벽 사이의 구멍, 래린 포터 곤트, 8월호, 20쪽

계명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 로라 에스 쇼트리지, 10월호, 어린이란 8쪽

약속의 땅을 향한 리하이의 여행, 다이안 테커, 11

월호, 어린이란 8, 12쪽

결심(약속)

거듭남과 헌신, 더블류 맥 로렌스, 7월호, 74쪽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고든 비 힝클리, 12월호, 8쪽

약속, 에프 버튼 하워드, 7월호, 27쪽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닐 에이 맥스웰, 7월호, 68쪽

결혼(성양, 가족 관계, 성전과 성전 사업 참조)

지나간 햇빛을 기억함, 웨이드 제이 햇치, 3월호, 26쪽

아내에게 봉사하는 것에 대해 내가 배운 것, 개리 엘 그레이, 9월호, 22쪽

경건

창조에 대한 경의, 캐런 에쉬튼, 9월호, 어린이란 8쪽

경건 공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리디아 더블류 워델, 10월호, 어린이란 6쪽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라", 스펜서 제이 콘디, 5월호, 16쪽

그리스도의 말씀, 캐런 에쉬튼, 3월호, 어린이란 10쪽

나의 아들이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호, 40쪽

내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커스틴 보이어, 7월호, 88쪽

내 발에 등ियो, 카르멘 로드리게스 디 푸엔테스, 2월호, 22쪽

말씀으로 너희의 마음을 가득 채우라, 엘 톰 페리, 11월호, 어린이란 2쪽

빛나는 경건, 릴라 바들릿 쿤스, 9월호, 48쪽

실현, 하이디 해리스, 2월호, 13쪽

우리 선조들의 신앙, 조셉 비 위스런, 7월호, 32쪽

인생에서 기쁨을 찾음, 리차드 지 스코트, 7월호, 24쪽

일용할 양식, 4월호, 25쪽

주님의 상에 와서 먹음, 엠 러셀 벨라드, 7월호, 80쪽

효과적인 경건 공부를 위한 제안, 리사 엠 그로버, 2월호, 40쪽

계명(순종 참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러셀 엠 넬슨, 7월호, 14쪽

"내가 생명을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로버트 디 헤일즈, 7월호, 35쪽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수잔 엘 워너, 7월호, 78쪽

우리 선조들의 신앙, 조셉 비 위스런, 7월호, 32쪽

주님의 길, 토마스 에스 몬슨, 7월호, 54쪽

계시(예언자 참조)

계속되는 계시, 제임즈 이 파우스트, 8월호, 2쪽
꿈과 약속에 관하여, 펠라 가르시아 데 브라보, 5월호, 8쪽
빛과 진리의 창, 조셉 비 위스린, 1월호, 75쪽

고결한 성품(성실)

주머니칼, 10월호, 8쪽
주은 사람이 임자, 마리 헬렌 터너, 6월호, 어린이란 10쪽
항상 정직하고 진실함, 캐런 애쉬튼, 10월호, 어린이란 4쪽

교육

"내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로버트 디 헤일즈, 7월호, 35쪽
야콥의 동생: 학습의 달인, 헨리 비 아이어링, 9월호, 16쪽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엘 톰 페리, 1월호, 35쪽
참되고 충실하라,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91쪽
플로렌스 추쿠라: 변화의 기적, 바바라 제이 클라크와 쟈 윌 핀보그, 6월호, 12쪽

교회 교육 기구

단지 한 학생만이, 비트리즈 이스터 페레즈 포르테스, 11월호, 17쪽

교회사(개척자 참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러셀 엠 넬슨, 7월호, 14쪽
슬픈 생일, 로버트 에이 밀러, 6월호, 어린이란 2쪽
요셉 의로운 자이며 예언자, 달린 에이치 옥스, 7월호, 71쪽
이 사업은 참됩니다. 데이비드 비 헤이트, 7월호, 22쪽
주님의 만찬에서 제정된 성찬, 엘 톰 페리, 7월호, 57쪽
히람 스미스: "하늘 기둥처럼 굳건함", 엠 러셀 벨라드, 1월호, 6쪽

권능(신권 참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러셀 엠 넬슨, 7월호, 14쪽
"주여...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한스 비 링거, 1월호, 83쪽

극기

분노를 진정 시킴, 대린 리스고우, 5월호, 22쪽

기도

나는 니파이를 알았다, 이안 손더스, 2월호, 10쪽
내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커스틴 보이어, 7월호, 88쪽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러셀 엠 넬슨, 7월호, 14쪽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캐런 애쉬튼, 8월호,

어린이란 14쪽

산 위의 불, 로이드 에이치 패리, 9월호, 어린이란 2쪽
신권의 축복, 로버트 디 헤일즈, 1월호, 32쪽
암흑에서 빛의 생활로, 프랭크 아웃셀트, 3월호, 44쪽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제프리 알 홀런드, 1월호, 67쪽
잃어버린 반지, 린다 리 테니, 2월호, 어린이란 7쪽
제가 간구함에 주님이 응답하심, 에릭 한센, 8월호, 33쪽
제이 벨라드 위시번 장로, 4월호, 어린이란 10쪽
"하나님께 간구하라", 2월호, 34쪽
한인상 장로, 10월호, 어린이란 2쪽
할머니의 정원, 엘마 제이 예이츠, 4월호, 어린이란 14쪽

기쁨(행복 참조)

L

남성과 여성의 역할(순결 참조)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 1월호, 102쪽; 6월호, 10쪽
동성에게 매력을 느낌, 달린 에이치 옥스, 3월호, 14쪽
세상의 속임수에 굳건하게 맞섬,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98쪽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개화, 마빈 케이 가드너와 브라이언 케이 켈리, 4월호, 34쪽

노래

나 어릴 때 주님을 찾으리, 조아 부쉬맨 독서, 3월호, 어린이란 13쪽
너와 견고, 캐롤 린 피어슨과 리드 앤 니블리, 6월호, 어린이란 4쪽
베들레헬 가는 요셉, 베시 손더스 스펜서와 아이리드 패인, 12월호, 어린이란 12쪽
용감한 중, 반자 와이 왓킨스, 9월호, 어린이란 5쪽

노르웨이

노르웨이 릴레스트롬의 헨릭 아문센, 디앤 워커, 11월호, 어린이란 14쪽

뉴스 속의 친구들

8월호, 어린이란 6쪽; 12월호, 어린이란 11쪽

□

단합

날이 새기 전에, 리토 바네즈 레가스피, 10월호, 28쪽

대관장단 메시지

감사는 구원의 원리임, 제임즈 이 파우스트, 12월호, 2쪽
계속되는 계시, 제임즈 이 파우스트, 8월호, 2쪽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고든 비 힝클리, 5월호, 2쪽
사랑이라 불리는 관문, 토마스 에스 몬슨, 10월호, 2쪽
성신의 은사-확실한 나침반, 제임즈 이 파우스트, 4월호, 2쪽
순종을 통해 오는 힘, 토마스 에스 몬슨, 11월호, 2쪽
요셉 스미스와 불문경, 제임즈 이 파우스트, 2월호, 2쪽
우리의 가족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네 가지 일, 고든 비 힝클리, 6월호, 2쪽
"충실한 신앙", 고든 비 힝클리, 9월호, 2쪽
행복-보편적인 추구, 토마스 에스 몬슨, 3월호, 2쪽

대만

복음 시간, 로리 리브시, 8월호, 10쪽

대중 매체(미디어)

텔레비전 멜로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에 무슨 잘못이라도 있습니까?, 2월호, 25쪽

도덕

올바른 길에 머무르십시오, 칼로스 이 에이시, 7월호, 59쪽

동성 연애(남성과 여성의 역할 참조)

딕슨, 존 비

존 비 딕슨 장로, 6월호, 어린이란 6쪽

□

맥스웰, 닐 에이

닐 에이 맥스웰 장로, 2월호, 어린이란 10쪽

모범

당신 때문에, 로렌스 헤이우드, 5월호, 30쪽
말일의 아버지를 위한 지도서, 김 크렌샤 소렌슨, 2월호, 28쪽
어린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시오, 엔 지 위스린, 1월호, 81쪽
인내심-천국의 미덕, 토마스 에스 몬슨, 1월호, 59쪽
주님을 신뢰함, 리처드 지 스코트, 1월호, 16쪽
특별한 카우보이, 토마스 헨콕, 5월호, 48쪽
하나님의 모습을 지닌 여인, 4월호, 20쪽
햇님이 됨, 콜리스 클레이튼, 8월호, 어린이란 16쪽

모성(어머니의 역할)(부모의 역할 참조)

목표

이곳을 기억하라, 크리스탈 토마스, 4월호, 24쪽

월호, 34쪽

물문경

“그 책은 버리지 마세요!”, 아파레치다 제미니스
데 올리베이라 파소스, 11월호, 8쪽

나는 니파이를 알았다, 이엔 손더스, 2월호, 10쪽

내 발에 등이요, 카르멘 로드리게스 디 푸엔테스,
2월호, 22쪽

말일의 아버지를 위한 지도서, 킴 크렌샤 소렌슨,
2월호, 28쪽

물문경: 성스러운 고대 기록, 테드 이 브루어튼, 1
월호, 30쪽

생명의 나무: 리하이의 꿈-시현에 대한 이야기, 9
월호, 34쪽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메시지, 로버트 이 웰즈, 1
월호, 65쪽

악을 막아주는 방패, 클라이드 제이 윌리엄스, 10
월호, 18쪽

야콥의 동생: 학습의 달인, 헨리 비 아이어링, 9월
호, 16쪽

야콥의 땅을 향한 리하이의 여행, 11월호, 어린이
란 8쪽, 어린이란 12쪽

“영광스러운 기록”, 로버트 엘 밀레트, 2월호, 14쪽

예언자의 약속을 증명함, 제임즈 알 프린스, 6월호,
44쪽

요셉 스미스와 물문경, 제임즈 이 파우스트, 2월호,
2쪽

이블린을 위한 책, 테레사 울프, 10월호, 16쪽

참인가 거짓인가, 제프리 알 홀런드, 6월호 46쪽

물문경 이야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관한 표적들,
10월호, 어린이란 14쪽

그리스도의 탄생의 징조, 8월호, 어린이란 2쪽

니파이가 금판을 얻음, 3월호, 어린이란 9쪽

니파이가 큰 권세를 얻음, 4월호, 어린이란 2쪽

대판사가 암살당함, 2월호, 어린이란 2쪽

레이맨인 사무엘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
기함, 6월호, 어린이란 14쪽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심, 12
월호, 어린이란 2쪽

물문 메시지

그분은 새로운 생명을 주심, 4월호, 9쪽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좋
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8월호, 9쪽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9월호, 11쪽

회개는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는 강한 비누입니
다, 10월호, 33쪽

미술(재능 참조)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11월호, 10쪽

생명의 나무: 리하이의 꿈-시현에 대한 이야기, 9

ㅂ

방문 교육 메시지

“강력한 치유의 힘”, 5월호, 24쪽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3월호, 31쪽

반서이신 우리의 구속주, 12월호, 25쪽

성약에 따른 상속자, 9월호, 25쪽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될, 8월호, 25쪽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2월호, 33쪽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모습을 지님, 6월호, 25쪽

인내로 경주함, 10월호, 25쪽

일용할 양식, 4월호, 25쪽

저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1월호, 25쪽

배도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메시지, 로버트 이 웰즈, 1
월호, 65쪽

신권의 축복, 로버트 디 헤일즈, 1월호, 32쪽

예언자의 음성,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호, 4쪽

복음

바구니와 병, 지에고 엔 오까자끼, 7월호, 12쪽

한 움큼의 음식과 기름 한 방울, 제프리 알 홀런
드, 7월호, 29쪽

봉사

도움의 손길, 보니 헨슨 켈리, 2월호, 45쪽

봉사하도록 부름 받음, 토마스 에스 몬슨, 7월호, 43쪽

성전 봉사, 로리 리브시, 2월호, 46쪽

아내에게 봉사하는 것에 대해 내가 배운 것, 개리
엘 그레이, 9월호, 22쪽

안델린 형제와 시소, 로버트 쇼고, 3월호, 28쪽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데이비드 비 헤이트, 5월호,
12쪽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 아침, 고든 비 힝클리, 7월
호, 65쪽

조그만 봉사, 리토 비 레가스피, 5월호, 46쪽

주님의 길, 토마스 에스 몬슨, 7월호, 54쪽

테일러 가의 유령, 비키 쉘런, 3월호, 어린이란 6쪽

특별 올림피 봉사자, 로리 리브시, 9월호, 12쪽

플로렌스 추쿠라: 변화의 기적, 바바라 제이 클라
크와 쟈 윌 핀보르크, 6월호, 12쪽

할머니의 정원, 엘마 제이 예이츠, 4월호, 어린이란
14쪽

부모의 역할(가족 관계 참조)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대관장단과 십이사
도 평의회, 1월호, 102쪽; 6월호, 10쪽

말일의 아버지를 위한 지도서, 킴 크렌샤 소렌슨,
2월호, 28쪽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고든 비 힝클리, 4월호,
10쪽

어린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시오, 엔지 위스런,
1월호, 81쪽

우리 가족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네 가지
일, 고든 비 힝클리, 6월호, 2쪽

인내로 경주함, 10월호, 25쪽

인내심-천국의 미덕, 토마스 에스 몬슨, 1월호, 59
쪽

“제가 가겠습니다”,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1월호,
43쪽

행복에 관한 영원한 율법, 린 에이 미겔슨, 1월호,
78쪽

부활(부활절, 예수 그리스도 참조)

부활, 로버트 제이 매튜, 4월호, 12쪽

부활절 이야기, 4월호, 어린이란 8쪽

부활절(속죄, 부활 참조)

긴증의 유산, 헨리 비 아이어링, 7월호 62쪽

우리 선조들의 신앙, 조셉 비 위스런, 7월호, 32쪽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 아침, 고든 비 힝클리, 7월
호, 65쪽

주님의 길, 토마스 에스 몬슨, 7월호, 54쪽

불가리아

불가리아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베스 데일리,
12월호, 26쪽

비평(비판)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닐 에이 맥스웰, 7월호,
68쪽

예언의 음성,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호, 4쪽

“오 주여, 당신의 교회를 기억하소서”, 고든 비 힝
클리, 7월호, 82쪽

ㅅ

사랑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리디아 더블
류 워델, 10월호, 어린이란 6쪽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3월호, 31쪽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닐 에이 맥스웰, 7월호,
68쪽

가정에서의 사랑, 캐런 애쉬튼, 6월호, 어린이란
8쪽

나는 이만큼 사랑해요, 레이돈 라이슨메이, 3월호,
42쪽

나의 아들이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

호, 40쪽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캐런 애쉬튼, 8월호.
 어린이란 14쪽
 바구니와 병. 지에코 엔 오가자끼, 7월호, 12쪽
 사랑이 가득한 여행 가방. 레이첼 페이스 캐스터,
 11월호, 어린이란 10쪽
 사랑이라 불리는 관문. 토마스 에스 몬슨, 10월호, 2쪽
 상호부조회: 길르앗의 유향. 엘레인 엘 잭, 1월호,
 90쪽
 상호부조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1월호, 96쪽
 장님의 시력. 로리 더블류 손튼, 3월호, 32쪽
 좋은 영향을 준 편지. 제너 브라이언, 10월호, 11쪽
 주님의 길. 토마스 에스 몬슨, 7월호, 54쪽
 주님의 상에 와서 먹음. 엠 러셀 벨라드, 7월호,
 80쪽
 코바늘 뜨개 담요 밑에서. 잔 머레이 스미스, 11월
 호, 32쪽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 쟈 엠 스미스, 12월호, 어린
 이란 8쪽
 크리스마스 외투. 네임 위드헬드, 12월호, 30쪽
 평안을 지님. 테머러 리덤 베일리, 11월호, 26쪽
 하나님의 모습을 지닌 여인, 4월호, 20쪽
 한인상 장로, 10월호, 어린이란 2쪽
 훌륭한 개념. 델린 에이치 옥스, 1월호, 25쪽

사진 에세이
 네덜란드의 개화. 마빈 케이 가드너와 브라이언
 케이 켈리, 4월호, 34쪽

사탄
 악을 막아주는 방패. 클라이드 제이 윌리엄스, 10
 월호, 18쪽

상호부조회
 살아있는 그물. 지에코 엔 오가자끼, 1월호, 93쪽
 상호부조회: 길르앗의 유향. 엘레인 엘 잭, 1월호,
 90쪽
 상호부조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1월호, 96쪽
 자매님들에 대한 사랑. 쟈 티 물리, 3월호, 46쪽

선교 사업
 가족 모두가. 로리 리브시, 10월호, 12쪽
 나의 아들이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제임스 이 파우스트, 7월
 호, 37쪽
 날이 새기 전에. 리토 바네즈 레가스피, 10월호,
 28쪽
 당신 때문에. 로렌스 헤이우드, 5월호, 30쪽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코로 오니아부치, 2월호,
 21쪽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고든 비 힝클리, 5월

호, 2쪽
 사랑으로 봉사하는 헝가리 자매들. 마빈 케이 가
 드너, 3월호, 34쪽
 선교 사업과 성전과 청지기 직분에 관하여.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51쪽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방법. 케이지 널과 아론 랜
 델 볼러, 10월호, 30쪽
 신권의 축복. 로버트 디 헤일즈, 1월호, 32쪽
 신앙으로 인생을 감동시킴. 헨리 비 아이어링, 1월
 호, 37쪽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됨. 8월호, 25쪽
 이블린을 위한 책. 테레사 울프, 10월호, 16쪽
 인도: 파종의 시기. 마이클 알 모리스, 6월호, 34쪽
 조그만 봉사. 리토 비 레가스피, 5월호, 46쪽
 칠레-비옥한 포도원. 마이클 알 모리스, 8월호,
 34쪽
 푸에르토리코의 기쁨에 찬 성도들. 래린 포터 곤
 트, 11월호, 34쪽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이 자랑하신다. 토마
 스 에스 몬슨, 1월호, 48쪽

선물
 기쁜 마음으로 베풀. 헨리 비 아이어링, 12월호,
 10쪽

선택(자유의지 참조)
 다시 돌아옴. 세라 피처럴드, 8월호, 46쪽
 세상적인 인기의 영합과 올바른 원리 준수. 닐
 에이 맥스웰, 8월호, 14쪽

성결케 함(성신 참조)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모습을 지님. 6월호, 25쪽

성신(하나님, 평화, 영생 참조)
 나는 니파이를 알았다. 이언 손더스, 2월호, 10쪽
 "너희는... 알지니라". 키스 비 맥멀린, 7월호, 8쪽
 물문경: 성스러운 고대 기록. 태드 이 브루어튼, 1
 월호, 30쪽
 빛과 진리의 창. 조셉 비 위스린, 1월호, 75쪽
 성신의 은사-확실한 나침반. 제임스 이 파우스트,
 4월호, 2쪽
 스네이크 강에서의 위험. 켈리 에인펠트, 3월호, 어
 린이란 14쪽
 신앙과 간증으로 찬 찬.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89쪽
 영적인 산꼭대기. 잭 에이치 고슬랜드, 1월호, 9쪽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 아침. 고든 비 힝클리, 7월
 호, 65쪽
 장님의 시력. 로리 더블류 손튼, 3월호, 32쪽
 증인들. 로렌 시 던, 1월호, 28쪽
 지혜의 말씀: 그 원리와 약속. 보이드 케이 패커,
 7월호, 17쪽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심. 가주코 다마키, 3월
 호, 9쪽
 하이람 스미스: "하늘 기둥처럼 굳건함". 엠 러셀
 벨라드, 1월호, 6쪽

성약(침례, 성전과 성전 사업 참조)
 간증의 유산. 헨리 비 아이어링, 7월호, 62쪽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
 라". 러셀 엠 넬슨, 7월호, 14쪽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로버
 트 디 헤일즈, 7월호, 35쪽
 성약에 따른 상속자. 9월호, 25쪽
 안식일과 일요일 물건 구매. 얼 시 텅기, 7월호, 10쪽
 올바른 길에 머무르십시오. 칼로스 이 에이시, 7월
 호, 59쪽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 아침. 고든 비 힝클리, 7월
 호, 65쪽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제프리 알 홀런드,
 1월호, 67쪽
 주님의 만찬에서 제정된 성찬. 엘 톰 페리, 7월호,
 57쪽

성전 및 성전과 성전 사업(가족 역사 참조)
 기이한 일. 마르셀리노 페르난데스 레볼로스 수아
 레스, 11월호, 22쪽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고든 비 힝클리, 12월호,
 8쪽
 선교 사업과 청지기 직분에 관하여. 고든 비 힝클
 리, 1월호, 51쪽
 성전 봉사. 로리 리브시, 2월호, 46쪽
 언젠가는 실현될 온전함. 러셀 엠 넬슨, 1월호, 86쪽
 인생에서 기쁨을 찾음. 리처드 지 스코트, 7월호,
 24쪽

성찬
 "너희는... 알지니라". 키스 비 맥멀린, 7월호, 8쪽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로버
 트 디 헤일즈, 7월호, 35쪽
 리지가 예수님을 기억함. 로잔 더블류 토엘크, 11
 월호, 어린이란 6쪽
 성찬식에서 최대한의 유익을 얻음. 대린 리스고우,
 6월호, 30쪽
 예수님을 기억함. 캐런 애쉬튼, 5월호, 어린이란
 10쪽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제프리 알 홀런드,
 1월호, 67쪽
 주님의 만찬에서 제정된 성찬. 엘 톰 페리, 7월호,
 57쪽
 증인들. 로렌 시 던, 1월호, 28쪽

성탄절(크리스마스)
세속적인 것(죄 참조)
 세상적인 인기의 영합과 올바른 원리 준수. 닐

의사 소통

- 한 그릇의 땅콩, 로널드 더블류 룩, 8월호, 48쪽
- 이야기**
- 과거를 위한 달력, 데이 데이빗슨, 5월호, 어린이란 5쪽
- 보라색 악어, 엘마 제이 예이츠, 8월호, 어린이란 8쪽
- 사랑이 가득찬 여행 가방, 레이철 페이스 캐스터, 11월호, 어린이란 10쪽
- 선물하기에 가장 좋은날, 마가렛 쇼어즈, 5월호, 어린이란 12쪽
- 육상 경기장, 테리 스타인즈, 9월호, 어린이란 11쪽
- 잃어버린 반지, 린다 리 테니, 2월호, 어린이란 7쪽
- 제이미의 말씀, 앤 윙, 2월호, 어린이란 14쪽
- 주운 사람이 입자, 마리 헬렌 터너, 6월호, 어린이란 10쪽
-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 켈 엠 스미스, 12월호, 어린이란 8쪽
- 테일러가의 유령, 비키 설런, 3월호, 어린이란 6쪽
- 할머니의 정원, 엘마 제이 예이츠, 4월호, 어린이란 14쪽
- 홀로 걷기, 앤 크라우더 헤릭, 10월호, 어린이란 10쪽

이혼

가정에서의 모든 일이 잘 안될 때, 잔 핀보로우, 8월호, 26쪽

인도

인도: 파종의 시기, 마이클 알 모리스, 6월호, 34쪽

일지(가족 역사 참조)

- 편지로 이루어진 일지, 로라 에스 쇼트리치, 5월호, 11쪽
-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지, 제프리 에스 맥클렌, 8월호, 30쪽

ㅈ

자유의지

- 꼭 붙들십시오, 제임스 엠 패러모어, 11월호, 28쪽
- 낙관을 가슴에 품고 역경을 이겨냄, 앤 매리 로즈, 7월호, 87쪽
-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러셀 엠 넬슨, 7월호, 14쪽
- 스스로 행동하며 강요되지 아니하느니라, 제임스 이 파우스트, 1월호, 45쪽
- 유혹, 롤런 지 크레이븐, 7월호, 76쪽
- 인생에서 기쁨을 찾음, 리차드 지 스코트, 7월호, 24쪽
- 존 비 딕슨 장로, 6월호, 어린이란 6쪽
- 주님을 신뢰함, 리차드 지 스코트, 1월호, 16쪽

참되고 충실하라,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91쪽

장애

- 구세주의 사랑에 안기어, 윌리엄 크레이그 즈위크, 1월호, 13쪽
- 선량함의 권세, 재닛 헤일즈 베컴, 1월호, 11쪽
- 제니의 기적, 빅터 더블류 해리스, 11월호, 46쪽

재능

인생에서 기쁨을 찾음, 리차드 지 스코트, 7월호, 24쪽

전세

이스라엘의 구속주, 브루스 디 포터, 1월호, 15쪽

제자

- 거듭남과 헌신, 더블류 맥 로렌스, 7월호, 74쪽
- "아버지의 뜻과 함께 하리로다", 닐 에이 맥스웰, 1월호, 22쪽

젠슨, 제이 이

제이 이 젠슨 장로, 9월호, 어린이란 6쪽

죄(회개 참조)

- 신앙과 간증으로 잔 찬,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80쪽
- 용서의 밝은 아침, 보이드 케이 패커, 1월호, 18쪽

주일학교(가르침 참조)

"다루기 힘든" 그 반!, 네이더 스티븐스 팀스, 12월호, 16쪽

죽음(필멸 참조)

- 신앙으로 인생을 감동시킴, 헨리 비 아이어링, 1월호, 37쪽
-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 아침,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65쪽

준비

- 가르치기 위해 준비함, 레이 엘 라슨, 9월호, 26쪽
- 제이미의 말씀, 앤 윙, 2월호, 어린이란 14쪽
-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엘 톰 페리, 1월호, 35쪽

중국(홍콩 대만 참조)

지도자를 지지함

살아 계신 예언자를 지지함, 재닛 헤일즈 베컴, 7월호, 84쪽

지혜의 말씀

- 육신을 위하지 않는 것은, 해롤드 지 힐람, 6월호, 26쪽
- 특별한 카우보이, 토마스 헨콕, 5월호, 48쪽
- 지혜의 말씀: 그 원리와 약속, 보이드 케이 패커, 7월호, 17쪽
- 빛과 진리의 창, 조셉 비 위스틴, 1월호, 75쪽

질 의 응답

- 어떻게 하면 제 친구가 요셉 스미스의 시현을 받아들일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6월호, 22쪽
- 텔레비전 멜로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에 무슨 잘못이라도 있습니까?, 2월호, 25쪽

ㅊ

창조

창조에 대한 경의, 캐런 애쉬튼, 9월호, 어린이란 8쪽

찬송가(음악 참조)

청소년

- "다루기 힘든" 그 반!, 네이더 스티븐스 팀스, 12월호, 16쪽
- 복음 시간, 로리 리브시, 8월호, 10쪽
-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고든 비 힝클리, 4월호, 10쪽
- 엘리스 스프링즈, 리차드 엠 톰니, 3월호, 10쪽
-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 아침,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65쪽
- 주님의 상에 와서 먹음, 엠 러셀 벨라드, 7월호, 80쪽
- "충실한 신앙", 고든 비 힝클리, 9월호, 2쪽
- 특별 올림피아 봉사자, 로리 리브시, 9월호, 12쪽

추쿠라, 플로렌스

플로렌스 추쿠라: 변화의 기적, 바바라 제이 클라크와 잔 유 핀보로그, 6월호, 12쪽

친구가 친구에게

- 닐 에이 맥스웰, 2월호, 어린이란 10쪽
- 제이 벨라드 워시번 장로, 4월호, 어린이란 10쪽
- 제이 이 젠슨 장로, 9월호, 어린이란 6쪽
- 존 비 딕슨 장로, 6월호, 어린이란 6쪽
- 한인상 장로, 10월호, 어린이란 2쪽

친구 사귀기

- 노르웨이 릴레스트롬의 헨릭 아문센, 디앤 워커, 11월호, 어린이란 14쪽
- 싱가포르의 라헬 탄, 마일스 티 튜슨, 3월호, 어린이란 2쪽
- 아이슬란드 후프나르프요르두르에 사는 브리놀푸르 비디르 올라프손, 디앤 워커, 9월호, 어린이란 14쪽
- 푸에르토리코 폰사의 이리스 조안 알바라도, 콜리스 클레이튼, 5월호, 어린이란 14쪽

친구에게

-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리디아 더블류 워델, 10월호, 어린이란 6쪽
- 리지가 예수님을 기억함, 로잔 더블류 토엘크, 11월호, 어린이란 6쪽
- 부활절 이야기, 4월호, 어린이란 8쪽
- 햇님이 됨, 콜리스 클레이튼, 8월호, 어린이란 16쪽

칠레

칠레-비옥한 포도원, 마이클 알 모리스, 8월호, 34쪽

침례(성약 참조)

증인들, 로렌 시 던, 1월호, 28쪽
참되고 충실하라,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91쪽
행복에 관한 영원한 율법, 린 에이 미컬슨, 1월호, 78쪽

ㄷ

탄, 라헬

싱가포르의 라헬 탄, 마일스 티 튜슨, 3월호, 어린이란 2쪽

태도

분노를 진정시킴, 대린 리스고우, 5월호, 22쪽
정반대의 결과, 스테파니 레드포드, 6월호, 32쪽
“제가 가겠습니다”,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1월호, 43쪽
존 비 딕슨 장로, 6월호, 어린이란 6쪽

ㄹ

평화(평안)(성신 참조)

그분은 새로운 생명을 주심, 4월호, 9쪽
상호부조화: 길르앗의 유향, 엘레인 엘 잭, 1월호, 90쪽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9월호, 11쪽

푸에르토리코

푸에르토리코의 기쁨에 찬 성도들, 래린 포터 곤트, 11월호, 34쪽
푸에르토리코 폰사의 이리스 조안 알바라도, 콜리스 클레이튼, 5월호, 어린이란 14쪽

프랑스

프랑스, 래린 포터 곤트, 5월호, 32쪽

필멸

신권의 축복, 로버트 디 헤일즈, 1월호, 32쪽

ㅎ

하나님 아버지(하나님 참조)

이스라엘의 구속주, 브루스 디 포터, 1월호, 15쪽
훌륭한 개념, 델린 에이치 옥스, 1월호, 25쪽

하나님(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신 참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러셀 엠 넬슨, 7월호, 14쪽
새로운 마음으로 결정함,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7월호, 85쪽
안식일과 일요일 물건 구매, 얼 시 텅기, 7월호,

10쪽

참되고 충실하라,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91쪽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이 자랑하신다, 토마스 에스 몬슨, 1월호, 48쪽

한인상

한인상 장로, 10월호, 어린이란 2쪽

함께 나누는 시간

가정에서의 사랑, 캐런 애쉬튼, 6월호, 어린이란 8쪽

그리스도의 말씀, 캐런 애쉬튼, 3월호, 어린이란 10쪽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캐런 애쉬튼, 8월호, 어린이란 14쪽

숙고하고 기도하고 귀기울이라, 캐런 애쉬튼, 4월호, 어린이란 12쪽

순종이라는 선물, 캐런 애쉬튼, 12월호, 어린이란 14쪽

십일조와 헌금, 캐런 애쉬튼, 11월호, 어린이란 4쪽
예수님을 기억함, 캐런 애쉬튼, 5월호, 어린이란 10쪽

창조에 대한 경의, 캐런 애쉬튼, 9월호, 어린이란 8쪽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캐런 애쉬튼, 2월호, 어린이란 12쪽

항상 정직하고 진실함, 캐런 애쉬튼, 10월호, 어린이란 4쪽

행복

선물하기에 가장 좋은 날, 마가렛 쇼어즈, 5월호, 어린이란 12쪽

“아버지의 뜻과 함께 하리로다”, 닐 에이 맥스웰, 1월호, 22쪽

인생에서 기쁨을 찾음, 리차드 지 스코트, 7월호, 24쪽
주님을 신뢰함, 리차드 지 스코트, 1월호, 16쪽

“주여...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한스 비 링거, 1월호, 83쪽

행복-보편적인 추구, 토마스 에스 몬슨, 3월호, 2쪽

행복에 관한 영원한 율법, 린 에이 미컬슨, 1월호, 78쪽

헌납

“아버지의 뜻과 함께 하리로다”, 닐 에이 맥스웰, 1월호, 22쪽

형가리

요셉의 아들 요셉, 제이 토드 마틴과 리사 에이 존슨, 9월호, 42쪽

사랑으로 봉사하는 형가리 자매들, 마빈 케이 가드너, 3월호, 34쪽

홍콩

가족 모두가, 로리 리브시, 10월호, 12쪽

회개(용서, 죄 참조)

암흑에서 빛의 생활로, 프랭크 아웃셀트, 3월호, 44쪽

인생에서 기쁨을 찾음, 리차드 지 스코트, 7월호, 24쪽
주님을 신뢰함, 리차드 지 스코트, 1월호, 16쪽

주머니칼, 10월호, 8쪽
지혜의 말씀: 그 원리와 약속, 보이드 케이 패커, 7월호, 17쪽

참되고 충실하라,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91쪽

회개는 두려움을 깨닫기 씻어주는 강한 비누입니다, 10월호, 33쪽

회개의 시간, 크리스토퍼 챗윈드, 11월호, 24쪽

회복(교회사 참조)

요셉 스미스와 물문경, 제임스 이 파우스트, 2월호, 2쪽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메시지, 로버트 이 웰즈, 1월호, 65쪽

증인들, 로렌 시 던, 1월호, 28쪽

희생

봉사를 통한 희생, 해롤드 지 힐람, 1월호, 41쪽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고든 비 힝클리, 12월호, 8쪽

힝클리, 고든 비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제닛 피터슨, 5월호, 어린이란 2쪽

꿈과 약속에 관하여, 펠라 가르시아 데 브라보, 5월호, 8쪽

저자별 색인

ㄱ

고슬린드, 잭 에이치

영적인 산꼭대기, 1월호, 9쪽

가드너, 마빈 케이

네덜란드의 개화, 4월호, 34쪽

사랑으로 봉사하는 헝가리 자매들, 3월호, 34쪽

곤트, 래린 포터

암벽 사이의 구멍, 8월호, 20쪽

푸에르토리코의 기쁨에 찬 성도들, 11월호, 34쪽

프랑스, 5월호, 32쪽

그레이, 개리 엘

아내에게 봉사하는 것에 대해 내가 배운 것, 9월호, 22쪽

그로버, 리사 엠

자신의 간증, 12월호, 32쪽

효과적인 경전 공부를 위한 제언, 2월호, 40쪽

포르테스, 비트리즈 이스트 페레즈

단지 한 학생만이, 11월호, 17쪽

L

널, 케이시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방법, 10월호, 30쪽

넬슨, 러셀 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나라", 7월호, 14쪽

언젠가는 실현될 온전함, 1월호, 86쪽

뉴웰, 로이드

키 올려 재기, 9월호, 46쪽

니블리, 리드 엔

너와 걷고, 6월호, 어린이란 4쪽

C

다마끼, 가주꼬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심, 3월호, 9쪽

던, 로렌 시

증인들, 1월호, 28쪽

데이빗슨, 데이비

과거를 위한 달려, 5월호, 어린이란 5쪽

데일리, 베스

불가리아의 "기쁘다 구주 오셨네", 12월호, 26쪽

데커, 다이안

약속의 땅을 향한 리하이의 여행, 11월호, 어린이란 8, 12쪽

델린바흐, 로버트 케이

불경스런 욕설, 9월호, 28쪽

독시, 조안 부쉬맨

나 어릴 때 주님을 찾으리, 3월호, 어린이란 13쪽

디디에이, 찰스

신권, 3월호, 어린이란 4쪽

R

라슨, 에이 엘

가르치기 위해 준비함, 9월호, 26쪽

레드포드, 스테파니

정반대의 결과, 6월호, 32쪽

런드, 제럴드 엔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결정적인 영향"을 받아 인격이 형성됨, 4월호, 26쪽

레가스피, 리토 비(바네즈)

날이 새기 전에, 10월호, 28쪽

조그만 봉사, 5월호, 46쪽

레이돈 라이슨 메이

나는 이만큼 사랑해요, 3월호, 42쪽

로렌스, 더블류 맥

거듭남과 헌신, 7월호, 74쪽

로즈, 앤 매리

낙관을 가슴에 품고 역경을 이겨냄, 7월호, 87쪽

롬니, 리차드 엠

앨리스 스프링즈, 3월호, 10쪽

룩, 로널드 더블류

한 그릇의 땅콩, 8월호, 48쪽

리브시, 로리

가족 모두가, 10월호, 12쪽

복음 시간, 8월호, 10쪽

성전 봉사, 2월호, 46쪽

특별 올림픽 봉사자, 9월호, 12쪽

리스크우, 대린

분노를 진정시킴, 5월호, 22쪽

성찬식에서 최대한의 유익을 얻음, 6월호, 30쪽

리온, 도로시

예수님의 이름, 4월호, 어린이란 5쪽

링거, 한스 비

"주여...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1월호, 83쪽

Q

마틴, 제이 토드

요셉의 아들 요셉, 9월호, 42쪽

매튜, 로버트 제이

부활, 4월호, 12쪽

맥멀린, 키스 비

"너희는... 알지니라", 7월호, 8쪽

맥스웰, 닐 에이

세상적인 인기에의 영합과 올바른 원리 준수, 8월호, 14쪽

"아버지의 뜻과 함께 하리이다", 1월호, 22쪽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7월호, 68쪽

맥클렌, 제프리 에스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지, 8월호, 30쪽

모리스, 마이클 알

인도: 파송의 시기, 6월호, 34쪽

칠레-비옥한 포도원, 8월호, 34쪽

몬슨, 토마스 에스

봉사하도록 부름 받음, 7월호, 43쪽

사랑이라 불리는 관문, 10월호, 2쪽

순종을 통해 오는 힘, 11월호, 2쪽

인내심-천국의 미덕, 1월호, 59쪽

장애물과 신앙과 기적, 6월호, 18쪽

주님의 길, 7월호, 54쪽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을 자랑하신다, 1월호, 48쪽

행복-보편적인 추구, 3월호, 2쪽

몰리, 잰 티

자매님들에 대한 사랑, 3월호, 46쪽

미겔슨, 린 에이

행복에 관한 영원한 율법, 1월호, 78쪽

밀러, 로버트 에이

슬픈 생일, 6월호, 어린이란 2쪽

밀레트, 로버트 엘

"영광스러운 기록", 2월호, 14쪽

B

바이더웨이, 존

하수도 안에 숨은 적, 9월호, 32쪽

배런드, 트레이시

단 둘이 보내기, 2월호, 42쪽

벨라드, 엠 러셀

주님의 상에 와서 먹음, 7월호, 80쪽

하이람 스미스: "허는 기둥처럼 굳건함", 1월호, 6쪽

버튼, 에이치 데이비드

"제가 가겠습니다", 1월호, 43쪽

버미론, 더글러스 제이

우리는... 믿는다, 10월호, 46쪽

베일리, 테머러 리덤

봉사 활동, 4월호, 40쪽

평안을 지님, 11월호, 26쪽

음악의 위력, 3월호, 40쪽

베컴, 재닛 헤일즈

살아 계신 예언자를 지지함, 7월호, 84쪽

선량함의 권세, 1월호, 11쪽
보웬, 아넷트 피
 찬송가에 담긴 소망, 4월호, 44쪽
보이어, 커스틴
 내 기도가 응답 되었어요, 7월호, 88쪽
브라보, 펠라 가르시아 데
 꿈과 약속에 관하여, 5월호, 8쪽
브라이너, 재너
 좋은 영향을 준 편지, 10월호, 11쪽
브루어튼, 테드 이
 물론경: 성스러운 고대 기록, 1월호, 30쪽
블러, 아론 랜덜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방법, 10월호, 30쪽

人

소렌슨, 킴 크렌샤
 말일의 아버지를 위한 지도서, 2월호, 28쪽
손더스, 이앤
 나는 니파이를 알았다, 2월호, 10쪽
손튼, 로리 더블류
 장님의 시력, 3월호, 32쪽
쇼고, 로버트
 안텔린 형제와 시소, 3월호, 28쪽
쇼어즈, 마가렛
 선물하기에 가장 좋은 날, 5월호, 어린이란 12쪽
쇼트리지, 로라 에스
 편지로 이루어진 일지, 5월호, 11쪽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 10월호, 어린이란, 8쪽
수아레스, 마르셀리노 페르난데스 레블로스
 기이한 일, 11월호, 22쪽
셜, 아론 리
 나는 그 느낌을 알고 있다, 5월호, 28쪽
셜런, 비키
 테일러 가의 유령, 3월호, 어린이란 6쪽
스미스, 오스본 앤
 가장 우선인 십일조, 12월호, 48쪽
스미스, 잰 엠(머레이)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 12월호, 어린이란 8쪽
 코바늘 뜨개 담요 밑에서, 11월호, 32쪽
스미스, 캐롤리 에이치
 아빠는 이런말을 쓰실까?, 9월호, 31쪽
스펜서, 배시 손더스
 배틀레험 가는 요셉, 12월호, 어린이란 12쪽
스코트, 리차드 지
 인생에서 기쁨을 찾음, 7월호, 24쪽
 주님을 신뢰함, 1월호, 16쪽
스타인즈, 테리
 육상 경기장, 9월호, 어린이란 11쪽

시얼, 돈 엘
 가나: 신앙의 가족, 10월호, 34쪽

○

아웃셀트, 프랭크
 암흑에서 빛의 생활로, 3월호, 44쪽
아이어링, 헨리 비
 간증의 유산, 7월호, 62쪽
 기쁜 마음으로 배품, 12월호, 10쪽
 신앙으로 인생을 감동시킴, 1월호, 37쪽
 아래의 동생: 학습의 달인, 9월호, 16쪽
애쉬튼, 캐런
 가정에서의 사랑, 6월호, 어린이란 8쪽
 그리스도의 말씀, 3월호, 어린이란 10쪽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8월호, 어린이란 14쪽
 숙고하고 기도하고 귀기울이라, 4월호, 어린이란 12쪽
 순종의 선물, 12월호, 어린이란 14쪽
 십일조와 헌금, 11월호, 어린이란 4쪽
 예수님을 기억함, 5월호, 어린이란 10쪽
 창조에 대한 경의, 9월호, 어린이란 8쪽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2월호, 어린이란 12쪽
 항상 정직하고 진실함, 10월호, 어린이란 4쪽
에이시, 칼로스 이
 올바른 길에 머무르십시오, 7월호, 59쪽
에인필트, 켈리
 스네이크 강에서의 위험, 3월호, 어린이란 14쪽
엘스워스, 호머 에스
 선한 목자에 대한 고찰, 12월호, 18쪽
에이츠, 엘마 제이
 보라색 악어, 8월호, 어린이란 8쪽
 할머니의 정원, 4월호, 어린이란 14쪽
오까자키, 지에코 엔
 바구니와 병, 7월호, 12쪽
 살아 있는 그물, 1월호, 93쪽
오니아부치, 오코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2월호, 21쪽
오카트라리-게이, 저메인 에밀리
 기적 같은 개종, 10월호, 26쪽
옥스, 델린 에이치
 동성에게 매력을 느낌, 3월호, 13쪽
 요셉 의로운 자이며 예언자, 7월호, 71쪽
 훌륭한 개념, 1월호, 25쪽
왓킨스, 반자 와이
 용감한 중, 9월호, 어린이란 5쪽
울시, 더럴 에이
 전략, 1월호, 84쪽

울프, 테레사
 이블린을 위한 책, 10월호, 16쪽
위스린, 앤 지
 어린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시오, 1월호, 81쪽
위스린, 조셉 비
 우리 선조들의 신앙, 7월호, 32쪽
 곧고 좁은 길, 8월호, 어린이란 5쪽
 빛과 진리의 창, 1월호, 75쪽
위너, 수잔 엘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7월호, 78쪽
위델, 리디아 더블류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10월호, 어린이란 6쪽
위커, 디앤
 아이슬란드 후프나르프요루두르에 사는 브리놀푸르 비디르 올라프손, 9월호, 어린이란 14쪽
 노르웨이 릴레스트롬의 헨릭 아문센, 11월호, 어린이란 14쪽
웰즈, 로버트 이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메시지, 1월호, 65쪽
 지상의 평화, 4월호, 46쪽
윌리엄스, 클라이드 제이
 악을 막아주는 방패, 10월호, 18쪽
윙, 앤
 제이미의 말씀, 2월호, 어린이란 14쪽

ㄸ

자일즈, 크리스티
 음악의 위력, 3월호, 40쪽
잭슨, 에미 조우
 조각, 4월호, 42쪽
잭, 엘레인 엘
 상호부조회: 길르앗의 유랑, 1월호, 90쪽
존슨, 리사 에이
 요셉의 아들 요셉, 9월호, 42쪽
즈위크, 윌리엄 크레이그
 구세주의 사랑에 안기어, 1월호, 13쪽

ㄹ

렛윈드, 크리스토퍼
 회개의 시간, 11월호, 24쪽

캐스터, 레이첼 페이스
 사랑이 가득찬 여행 가방, 11월호, 어린이란 10쪽

켈리, 보니 헨슨
 도움의 손길, 2월호, 45쪽

켈리, 브라이언 케이
 네덜란드의 개화, 4월호, 34쪽

콘디, 스펜서 케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라", 5월호, 16쪽

쿤스, 릴라 바틀릿
 빛나는 경전, 9월호, 48쪽

크레이븐, 톨런 지
 유희, 7월호, 76쪽

클라이드, 에일린 에이치
 상호부조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월호, 96쪽

클라크, 바바라 케이
 플로렌스 추쿠라: 변화의 기적, 6월호, 12쪽

클레이튼, 콜리스
 푸에르토리코 폰사의 이리스 조안 알바라도, 5월호, 어린이란 14쪽
 햇님이 됨, 8월호, 어린이란 16쪽

E

터너, 마리 헬렌
 주운 사람이 임자, 6월호, 어린이란 10쪽

팀스, 네이더 스티븐스
 "다루기 힘든" 그 반!, 12월호, 16쪽

팅기, 얼 시
 안식일과 일요일 물건 구매, 7월호, 10쪽

테니, 린다 리
 잃어버린 반지, 2월호, 어린이란 7쪽

토엘크, 로잔 더블류
 리지가 예수님을 기억함, 11월호, 어린이란 6쪽

토마스, 재닛
 불과 얼음의 땅, 12월호, 42쪽

토마스, 크리스탈
 이곳을 기억하라, 4월호, 24쪽

튜슨, 마일스 티
 싱가포르의 라헬 탄, 3월호, 어린이란 2쪽

F

파소스, 아파레치다 제미니스 데 올리베이라
 "그 책은 버리지 마세요!", 11월호, 8쪽

파우스트, 제임스 이
 감사는 구원의 원리임, 12월호, 2쪽
 계속되는 계시, 8월호, 2쪽
 나의 아들이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7월호, 40쪽
 성신의 은사-확실한 나침반, 4월호, 2쪽
 스스로 행동하며 강요되지 아니하시리라, 1월호, 45쪽

신권 축복, 1월호, 62쪽
 예언의 음성, 7월호, 4쪽
 요셉 스미스와 물문경, 2월호, 2쪽

파킨, 보니 디
 영원과 오늘을 위한 닻, 7월호, 90쪽

패러모어, 제임즈 엠
 꼭 붙드십시오!, 11월호, 28쪽

패리, 로이드 에이치
 산 위의 불, 9월호, 어린이란 2쪽

페인, 아이 리드
 베들레헴 가는 요셉, 12월호, 어린이란 12쪽

패커, 보이드 케이
 용서의 밝은 아침, 1월호, 18쪽
 지혜의 말씀: 그 원리와 약속, 7월호, 17쪽

페레이스, 샌티아고 마케이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5월호, 25쪽

페리, 엘 톰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1월호, 35쪽
 말씀으로 너희의 마음을 가득 채우라, 11월호, 어린이란 2쪽
 주님의 만찬에서 제정된 성찬, 7월호, 57쪽

포터, 브루스 디
 이스라엘의 구속주, 1월호, 15쪽

푸엔테스, 카르멘 로드리게스 디
 내 발에 등이요, 2월호, 22쪽

프린스, 제임스 알
 예언자의 약속을 증명함, 6월호, 44쪽

프리스콧, 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게 예언자를 주셨습니다, 7월호, 89쪽

피어스, 버지니아 에이치
 새로운 마음으로 경청함, 7월호, 85쪽

피어슨, 캐롤 린
 나와 견고, 6월호, 어린이란 4쪽

피쳐럴드, 세라
 다시 돌아옴, 8월호, 46쪽

피터슨, 재닛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5월호, 어린이란 2쪽

핀보로우, 잰 유
 플로렌스 추쿠라: 변화의 기적, 6월호, 12쪽
 가정에서 모든 일이 잘 안될 때, 8월호, 26쪽

G

하워드, 에프 버튼
 약속, 7월호, 27쪽

한센, 에릭
 제가 간구함에 주님이 응답하심, 8월호, 33쪽

해리스, 빅터 더블류
 제나의 기적, 11월호, 46쪽

해리스, 하이디
 실험, 2월호, 13쪽

헨슨, 더블류 유진
 영적인 목자들, 7월호, 38쪽

헨콕, 토마스
 특별한 카우보이, 5월호, 48쪽

햇치, 웨이드 케이
 지나간 햇빛을 기억함, 3월호, 26쪽

헤이트, 데이비드 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1월호, 73쪽
 이 사업은 참됩니다, 7월호, 22쪽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5월호, 12쪽

헤일즈, 로버트 디
 신권의 축복, 1월호, 32쪽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7월호, 35쪽

헌세이커, 네티
 아팍의 노래, 12월호, 22쪽

헤릭, 앤 크라우더
 홀로 걷기, 10월호, 어린이란 10쪽

헤이우드, 로렌스
 당신 때문에, 5월호, 30쪽

홀런드, 제프리 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1월호, 67쪽
 참가가 거짓인가, 6월호, 46쪽
 한 음식의 음식과 기름 한 방울, 7월호, 29쪽

힐람, 헤들드 지
 봉사를 통한 회생, 1월호, 41쪽
 육신을 취하지 않는 것은, 6월호, 26쪽

힝클리, 고든 비
 그 길에 머무르십시오-신앙을 수호하십시오, 1월호, 70쪽
 깨끗하지하다, 7월호, 46쪽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5월호, 2쪽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4월호, 10쪽
 선교 사업과 성전과 청지기 직분에 관하여, 1월호, 51쪽
 세상의 속임수에 굳건하게 맞섬, 1월호, 98쪽
 신앙과 간증으로 찬 찬, 1월호, 89쪽
 엘리야의 영, 11월호, 18쪽
 "오 주여, 당신의 교회를 기억하소서", 7월호, 82쪽
 우리가 함께 모일 때, 1월호, 4쪽
 우리의 가족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네 가지 일, 6월호, 2쪽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 아침, 7월호, 65쪽
 참되고 충실하라, 7월호, 91쪽
 "충실한 신앙", 9월호, 2쪽

반석이신 우리의 구속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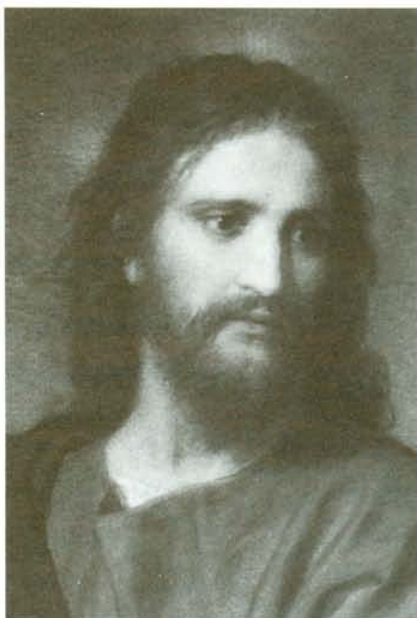


그림: 아인리히 오프만, "그리스도와 부자 장년"의 일부

“유일한 큰 반석” (아골서 4:16)

스팬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은 한 연차 대회 말씀을 통해 산더미같이 거대한 해일이 해안을 할퀴고 지나간 직후인 1946년의 어느날 하와이 본섬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김블 대관장은 언덕 위로 달아나 구사 일생으로 죽음을 면했지만 연신 몰아치는 파도 속에 집이 문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했다.

이어, 김블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파괴적인 힘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죄, 사악, 부도덕, 타락, 포악, 속임, 음모, 부정적의 물결이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것들은 거대한 힘과 빠른 속도로 밀려 오고 있으며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경고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으로 피신하거나 우리를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지켜 주는 것을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성도의 빛, 1979년 4월호, 7쪽)

확고한 토대를 세움

어떠한 시련이나 비애, 또는 공포라 할지라도 결코 극단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확고한 하나의 기초는 바로 우리의 구세주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

리스도이다. 예언자 힐라맨은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깨우고 있다. “너희를 세울 기초가 되실 이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반석이신 구세주임을... 기억할지이다. 그리할진대 악마가 그의 세찬 바람을 불어 보[낼지라도]... [너희에게 힘을 미치지] 못할지니... 이는 너희가 분명한 토대 위에 세워졌음이라.”(힐라맨서 5:12)

그리스도 안에 견고한 기초를 놓고자 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기본 원리를 활용하여야 한다. 어느 교회 회원은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우선으로 두도록 가르치신 것을 최우선으로 실천하는 것이 구세주를 삶의 근원으로 받아들이는 첩경임을 알게 되었다. 십일조와 헌물을 지체없이 드림, 기도함, 경전을 연구함, 교회 부름에 큰 비중을 두는 것 등이 그러한 것에 포함된다.

그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제가 이러한 일들을 실천함에 따라, 제 생활이 보다 행복해졌습니다. 제가 취한 행동들이 구세주를 알고 그분과 같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한 영적 발

전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앤사인, 1995년 9월호, 41쪽)

확고한 토대는 평화를 가져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키움으로써 필멸의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보다 잘 풀어 나갈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생활이 더욱 안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힘겨워 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우리는 자신이 점차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가게 된다.

십이사도 정원희의 일원인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그의 부인이 암으로 갑자기 사망한 후 맞은 봄철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간증했다. “가장 힘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동반한, 진실로 영원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에 중심을 둔 생활에서 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반석을 연습합니다. 하지만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과에 대한 보상은 바로 주어지지 않지만, 주님의 시간에 따라 해결책이 나오고 평화가 퍼지고 공허함이 채워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17쪽)

•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토대를 강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우리가 시련에 처했을 때 우리의 복음의 토대는 우리에게 전도를 어떻게 펼쳐 주는가? □

불가리아의 “기쁘다 구주

베스 데일리



불가리아 선교부 소속 선교사들의 여기를 받아 게재함

그 아이디어는 한 소절의 노래 가락처럼 아주 단순한 것이었다. 1983년이 저물어 가는 어느 날 불가리아 소피아의 선교부장인 데일 제이 워너는 아내인 레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선교부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져야겠어.”

레니도 그 아이디어에 찬성하고 그것을 구체화시킬 행사에 곧 착수했다. 이 행사는 정규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불가리아 사람들을 돋보이게 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공연인 하나의 환희의 교향곡으로 드러날 것이었다. 이것은 불가리아말로 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부를 8살 짜리 어린이가 조명을 받으면서 시작될 것이다.

이 굉장한 순간이 있기 전에 조그만 기적 하나가 일어나야 했었다. 불가리아가 공산 치하에 있을 때는 크리스마스 휴일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 공산주의의 쇠퇴 이후로, 불가리아는 기독교의 대부활을 맞게 되고 그에 따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가 구세주의 탄생과 회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불가리아에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서 그리스도 위주의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은 공공연한 것이 되었다. 워너 선교부장과 그 자매는 은퇴한 언론인이요, 교회 회원인 즐라티나 빌리아스카에게 이 프로그램의 각본을 짜보도록 부탁했다. 즐라티나는 망설였다.

“글쎄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할지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건 너무 어렵겠는데요.”라는 즐라티나의 대답에, 워너 자매는 당장 거절하지 말고 그 임무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보도록 격려했다.

다음날 아침 즐라티나는 워너 자매를 만났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야 할지 생각났어요.” 그 다음 날, 그녀는 밤새 작업한 3부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초안을 워너 자매에게 건네 주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완벽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라고 워너 자매는 말했다.

즐라티나는 워너 자매와 선교사인 레슬리 데이비스 자매의 도움을 받아 마지막 초안을 완성했다. 그 프로그램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통 불가리아적인 것과 범세계적이고

오셨네 ”

서유럽적인 것 및 단순히 크리스마스적인 세 장면으로 꾸며졌다. 여기엔 불가리아어로 번역되어야 할 28곡의 노래가 있었으며 잘 다듬어진 배경과 배역진, 그리고 백 명 이상의 합창단이 있어야 했다. 이 작품을 위해 회원들에게 지워진 기대는 실로 무서울 정도였다.

교회 회원이 되기 전에 오페라 가수였던 에반카 페시노바 자매가 이 작품의 감독을 맡았다. 그녀는 낯선 노랫말들을 불가리아어로 번역하고 합창단을 조직했다. 연습을 위해 편도 두 시간의 여행을 해야 하는 먼 거리에 도 불구하고 합창 단원들은 열성적이었고 헌신적이었다. 그들은 연습을 놓친 적이 없었으며 이로써 음악 부분은 잘 맞추어지기 시작했다.

의상과 무대 배경에 있어서는 몇몇 개인들이 재능을 발휘했다. 훌륭한 재봉사인 엘레나 셋틸리아노바가 세 장면 모두를 위한 의상을 찾아 내거나 만들었다. 국립 극장의 배우인 한 구도자는 산타클로스의 의상을 준비해 주었고, 화가인 어떤 자매는 배경을 정교하게 그려 주었다. 두루마리 종이 사용이 여의치 않은 이 나라에서 그 구도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장면에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내었다. 산타클





로스의 의상을 마련해 주었던 그 구도자는 국립 극장에서 조명 기술자와 함께 조명도 빌려다 주었다.

선교부 사무실 방은 조그마해서 이 작품의 모든 장비 및 출연진과 손님들을 수용하기 힘들었으므로 소피아의 모스크바 호텔 연회실을 선교부 자금으로 예약했다. 그 연회실은 조그만 무대와 피아노 한대, 그리고 매우 제한된 공간이 전부였지만 찾을 수 있는 장소로서는 그것이 최상이었다. 합창 단원들은 “입석” 뿐인 좌석을 보고 웃었으며 공연을 하지 않을 때는 무대 뒤에 서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매주 연습이 계속되었으므로 작업은 자체의 계획에 맡겨졌다. 회원들의 열의는 점점 확신을 심어 주었으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구세주의 탄생과 그 중요성을 노래부를 그때를 고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흥분이 더해 가면서 불화로 인해 그룹의 조화가 무너지는 일이 생겼으며 신문과 텔레비전들은 교회를 헐뜯기 시작했다. 선교사들은 몸을 너무 혹사했으며 선교사 숙소와 선교부 사무실의 창으로는 돌이 날라 들었다. 어느 날 밤에는 선교부 사무실의 앞면 전체가 외설스런 욕설로 칠해졌다.

반 교회 감정이 고조되자 모스크바 호텔의 지배인은 자기네 호텔에서 그

행사를 개최하도록 허락한 것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염려하기 시작했다. 그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불과 36시간 전에 호텔측은 예약된 그 방을 회원들이 사용할 수 없다고 선교부에 알려 왔다.

일부 회원들은 그 소식을 듣고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이 취소될 것이라 믿으며 매우 슬퍼했다. 그러나 워너 부장은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어디서 가져야 하며 우리에게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시다.”라고 그가 말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어 주셨다. 선교부장 보조인 트랜트 머레이 장로와 하는 포드 장로가 선교부의 돈을 돌려 받으려 모스크바 호텔로 왔을 때 지배인은 중앙 홀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을 꺼려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층에 있는 한 방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선생님의 교회분들이 앞문 대신 뒷문의 계단으로 올라 다닐 것과 로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이 방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라고 그 지배인은 말하면서 훨씬 더 큰 무도장 문을 열어 보였다. 그 방은 그 전에 예약했던 것보다 두 배 반은 더 큰 방으로 멋진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으며 거기다 크리스마스 트리

와 그 밖의 크리스마스 장식들까지 있었다.

소피아의 어느 추운 토요일 오후에 선교사들은 그 프로그램을 위해 오는 회원들과 고문들을 만나 뒷문을 가르쳐 주었으며 그 뒷문으로 그들은 눈에 띄지 않게 호텔로 들어갔다. 400명 이상의 손님들이 그 무도장을 매웠다. 휴일에 일하는 것이 반갑지 않은 조명 기술자들의 우울한 얼굴이 그들의 행복한 기분을 망칠 수는 없었다.

150명의 합창 단원들은 아름답게 노래했으며 다 함께 노래 부르기에서는 관중들도 따라 불렀다. 이윽고 마지막 장면에서 요셉과 마리아로 분장한 젊은 남녀가 아기를 구유에 뉘었다. 방안은 환희의 음악으로 가득 찼다. 조명 기술자조차도 다른 사람을 따라 노래부르며 손뼉을 쳤다.

영의 힘이 너무나 강하여 아무도 자리를 뜨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행사가 그렇듯이 그 크리스마스 프로그램도 끝날 때가 되었다.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노래불렀던 그 어린이가 무반주 솔로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면서 그 행사는 끝이 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참여자와 관객들의 마음속엔 그들이 경험한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메아리가 울려 퍼졌으며 그 메아리는 불가리아의 찬 냉기를 녹여 주었다. □



크리스마스 외투

우리 가족은 익명으로 남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것을 관습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이 일자리를 잃은 올해는 어떡할까?

네임 위드헬드



우리가 결혼하여 처음으로 함께 크리스마스 절기를 보냈던 1973년에 남편은 크리스마스 보너스로 40불을 받아 왔다. 선물 살 돈이 넉넉치는 않았지만 우리는 최근에 가장을 잃은 가족을 위해 그 보너스를 쓰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굉장히 즐거워하며 선물을 산 뒤 몰래 그 집 문 앞에 선물을 두고 오면서 이러한 은밀한 계획을 가족 전통으로 만들었다.

여러 해가 지나면서 우리는 네 아이를 두는 축복을 받았다. 각 아이가 충분히 키가 크게 되면 한 해 한 번 크리스마스 때만 사용하는 특별한 외투를 입히는 순서를 가지곤 했다. 짙은 색깔에 모자가 달린 성인용의 그 외투는 어둠 속에서 어떤 사람의 집 문 앞에 선물을 몰래 두고 오는 데 제격인 완전한 변장용이었다.

매년 가을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될 그 비밀의 가족과 그들에게 줄 선물을 투표로 정하곤 했다. 아이들은 그 해 그 영광의 크리스마스 외투를 입고 선물을 배달할 사람을 결정했다. 돈이 넉넉했던 해에는 장난감과 책과 맛있는 사탕들에 곁들여서 집에서 만든 누비 이불이나 옷을 보내고 넉넉치 못한 해에는 양말에 조그만 물건들을 넣어 보내기도 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 되면 그 행운의 아이는 그 외투를 걸치고 장갑이랑 큰 부츠를 신고 완전한 변장으로 무장한다. 가족 모두가 차에 탄 채, 우리의 꼬마 요정이 선

정된 그 집 문 앞에 선물을 두고 올 때까지 우리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차를 세워 놓고 기다리고 있다. 발각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이 일을 한층더 흥미진진하게 만들곤

했다.

그 일을 끝내고 아늑한 우리의 집으로 돌아 오면 우리 가족은 함께 앉아 뜨거운 코코아와 딱딱한 빵을 먹으며 그날 저녁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포만감과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는 성경에서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읽으며 봉사에 관해 구세주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들에 감사했다.

크리스마스는 언제나 멋졌고 우리는 매년 우리의 전통을 고수했다.

우리가 함께 해온 지 스무 번째 해의 봄에 남편은 일자리를 잃었다. 크리스마스 무렵, 남편은 새 일자리를 구했지만 우리의 재정 상태는 좋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의 충분한 크리스마스 선물도 기대하지 못했으므로 우리의 비밀스런 전통을 어떻게 지키게 될지 의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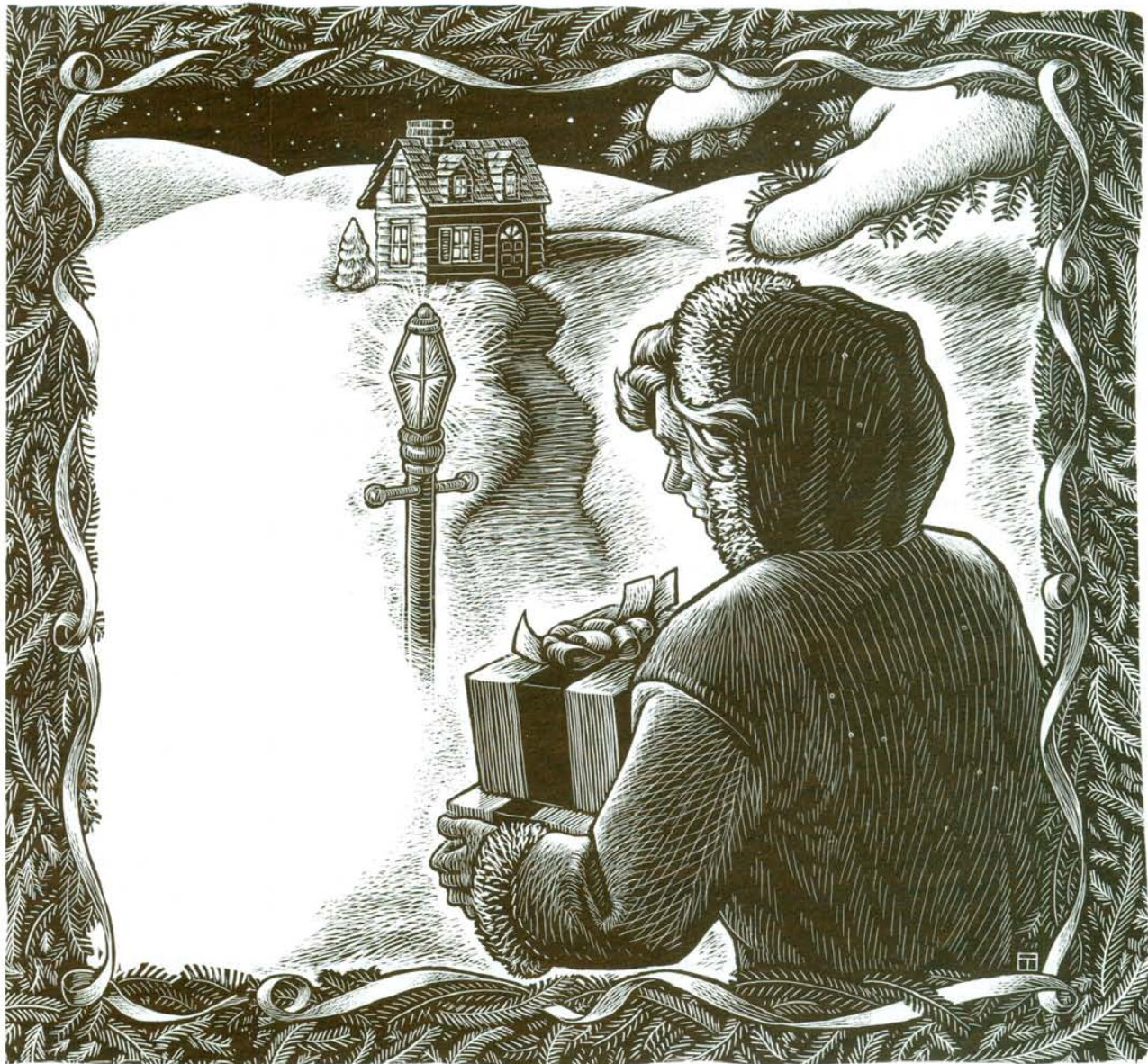
가정의 밤 시간에 우리는 그 해의 크리스마스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비록 선물이 그리 많지 않더라도 우리는 최소한 따뜻한 집과 음식과 가족이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했으며 집이나 가족이나 난방 기구같은 필수적인 것도 갖지 못한 많은 가족에 대해 생각했다. 그런 다음 여러 해 동안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외투를 입고 모자에 얼

굴을 가린채 몰래 문 앞에다 가족의 선물을 놓고 들키지 않게 도망쳐 온 것에 대해 생각했다. 올해엔 어떻게 그 외투를 사용할 것인가?

어느 일요일 아침에 우리 가족은 함께 차를 타고 우리의 크리스마스 외투를 가지고 시내로 갔다. 집없는 사람들이 종종 밤을 보내는 지역으로 가서 우리는 따뜻한 옷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지켜 보기로 했다. 혼자 걷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한 후 남편과 아들이 그에게 다가 갔다. 나머지 우리들은 그 남자가 외투를 받고 미소짓는 것을 지켜 보았다.

그 해에 남에게 줄 수 있었던, 우리가 가진 단 하나의 선물인 우리의 크리스마스 외투를 걸친 그를 보자 나의 눈엔 눈물이 고였다.

그 뒤로 여러 번의 크리스마스를 지나는 동안도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크리스마스 외투를 잊어버린 사람은 없다. 우리가 외투로 변장하여 선물을 전했던 그 모든 세월을 생각해 보건데 그래도 그 외투를 주었던 해의 기억이 나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해준다. □



자신의 간증

리사 엠 그로버

가질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다 그렇듯이, 간증을 가지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구세주에 관한 간증을 쌓는 일이라면 어떠한 노력이라도 기울일만한 가치가 있다. 간증이야말로 자신의 여생을 쌓아 올릴 가장 튼튼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간증을 강화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배우는 것이다.(크리스마스 특집 기사 “그분은 살아계시다” 참조) 이 밖에 구세주에 관하여 더 많이 배우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아래에 그 일부를 소개한다.

경전을 사용함

- 어린이에게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읽어 준다.
- 신약과 물몬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에 관한 기사를 읽는다.
- 경전에서 그리스도의 생활과 연관된 특정한 장을 선정하여 읽은 다음, 세미나나 가정의 밤 공과 시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적인 말씀을 한다.
- 자기가 좋아하는 구세주에 관한 성구를 암기한다.
- 구세주께서 살아 계실 당시에 생존했던 사도들의 간증을 읽고, 그들의 삶에 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도록 한다.
- 요셉 스미스의 간증과 세 목격자 및 여덟 목격자들의 간증을 읽는다.

자신의 재능을 활용함

- 브르스 알 맥콩기 장로가 작사한 “나 그리스도 믿습니다”(찬송가, 70장)와 같은 구세주에 관한 찬송가 가사를 익힌다.
- 구세주의 생애와 속죄에 관해 자신이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시를 짓거나 또는 짤막한 기사를 쓴다.
- 와드(또는 지부) 합창단에 참여한다. 지도자들과 협의하여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합창곡으로 편곡하여 부르거나 청

소년 합창단을 만든다.

- 악기를 연주할 줄 알면 와드의 회원들이 구세주의 생애에 관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반주를 한다.
- 합당한 모임에서 영적인 말씀을 전할 것을 제안한다. 또는 자신이 속한 정원회나 공과반에서 공과를 가르칠 것을 제의한다. 이 경우, 구세주의 생애에 초점을 맞춘다.
-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선교사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쿠키를 전하거나 다른 명절에 식사 초대를 한다. 또는 비회원 친구나 이웃을 초대하여 함께 시간을 보낸다.
-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한 그림을 그린다. 이 그림을 창조주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적은 글과 함께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움

-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현대 예언자들의 간증이 기록된 기사를 읽는다. 또는 그분들의 간증을 쌓은 경험담을 읽은 후, 그 모범을 따르도록 노력한다.
- 자신의 간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그 믿음을 명확하게 하고 강화시킬 수 있다.
- “미국에서의 크리스마스”(프렌드, 1995년 12월호, 2-3쪽)나 “예수님의 탄생”(성도의 빛, 1995년 12월호, 32-39쪽)과 같이 교회 잡지에 나와 있는 구세주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선정하여 어린이와 함께 읽는다.
- 자신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에게서 그리스도와 같은 자질을 찾는다. 이렇게 할 경우, 자신이 훌륭한 모범을 얻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분들에게 화를 잘 내지 않게 된다.
- 복음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써서 구세주에 관한 여러분의 간증을 함께 나눈다.
- 만일 조상들의 일지를 구할 수 있으면 그것을 읽고 조상들의 구세주에 대한 견해를 알아 본다. □





“저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한 간증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 날이 흐르면서 불현듯 복음이 참되다는 확고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매우 안도감을 느끼며, 또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크리스틴 태버닐라 (오만, 무스카트)



“작년에 저의 부친이 사고로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그후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청소년들과 별로 다를 바 없지만, 그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압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가진 간증으로 인해, 제 삶에서 겪게 되는 행복과 불행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김해영 (한국,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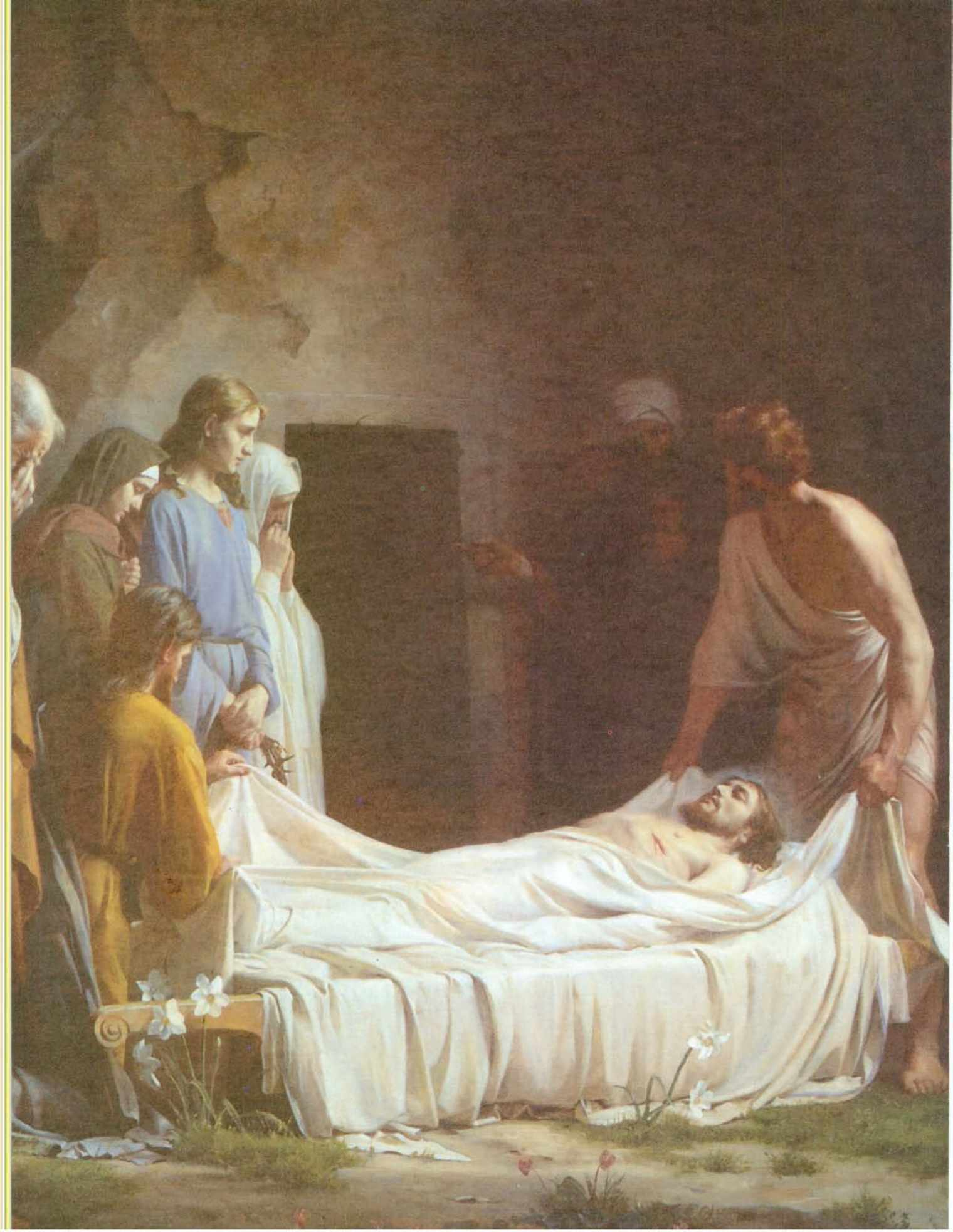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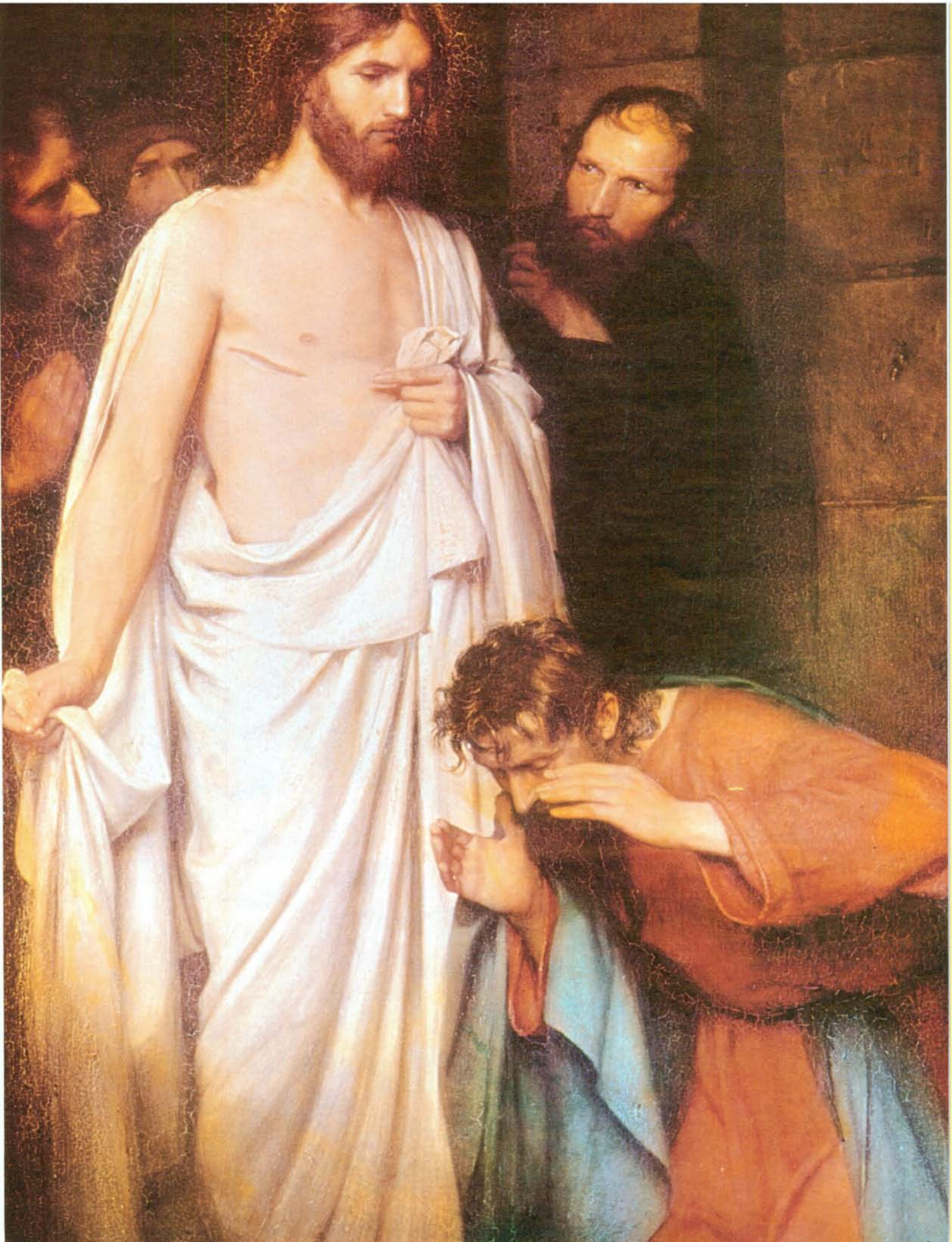
“제 인생의 어려운 시기마다 제가 가진 간증은 제게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라도 저는 단지 제가 가진 귀중한 보화,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느낍니다. 제 주변에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에 힘입어 변화되는 사람들의 삶을 봅니다.”
—셀리오 카르네이로 히메네스 장로 (브라질, 세아라, 후오탈레자)

그림: 루이 안토니오 블로호, 그리스도의 사랑, 티마크 프리드리히스비르, 프라드리히스비르 교장, 프라드리히스비르 보물권의 순언을 받은 세계관.



“저는 어린 소녀 시절부터 매우 수줍음을 잘 탔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때가 되면 저는 마치 사자들이 저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만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나마 세상에 간증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며 요셉 스미스가 진실로 예언자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경전을 읽고 계명을 지킬 때 이 지상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왕국에 거할 자리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벨 아슈 엔 동고 마시아스 (스페인 마드리드)







“매주 일요일 교회에 나가 성찬을 취함으로써 저는 그 다음 한 주 동안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생이 준비하는 시기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스스로를 비취 보아야 할 유일한 거울입니다”.
—티토 게오바니 매시아스 로볼즈 (에콰도르 엘 오로 매찰라)



“저는 우리 가정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입니다. 때로는 교회 회원으로서 발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시련을 겪으면서 저의 간증이 강화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를 그분들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결코 혼자 아닙니다. 제가 그분들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분들은 저와 함께 해 주십니다. 저는 복음을 사랑하며 제가 교회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언젠가는 유일한 참된 교회의 회원으로서 맛볼 수 있는 참다운 기쁨을 나의 모든 가족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리아 헤베 페레이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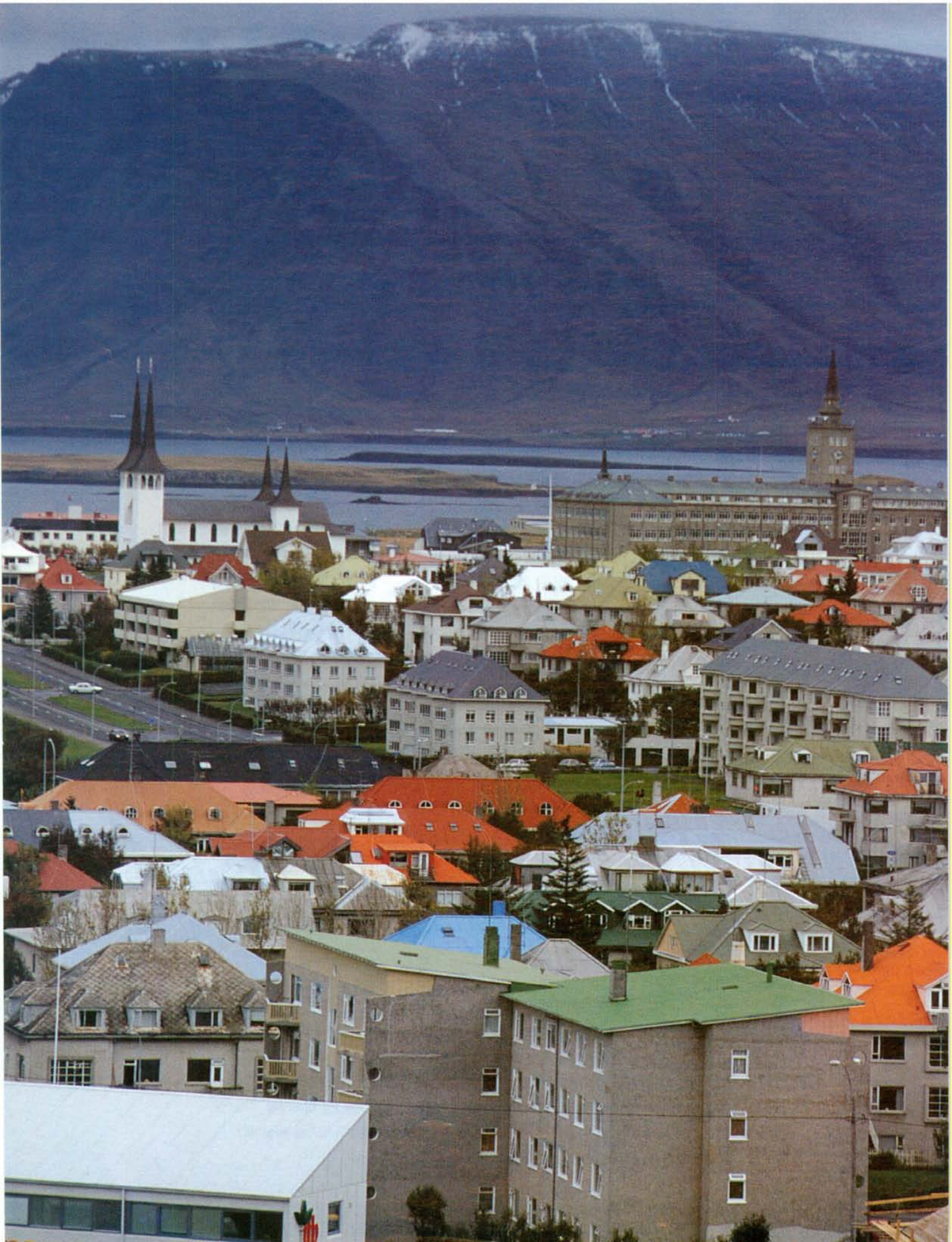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인간의 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불순종하는 마음을 변화시키며 삶에 넘치는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됨으로써, 저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목적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회원이 되겠다는 결심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매리 리 조이 시가요 (필리핀 라구나 비나즈)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모범이셨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미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났으며,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지상 부모의 자녀로 성장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많은 고통과 수난을 당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창조자였으며, 만일 제가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그분을 믿고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다시 돌아와 그분을 만나게 되리라는 약속을 아직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곁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다시 돌아 오게 해 주신 것에 대해 그분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란카 에스텔라 가르시아 아귤라 (엘살바도르 우술루탄 시) □



왼쪽: 아이슬랜드의 수도 레이카비크 시내의 각양 각색의 지붕들은 흐린 날씨에도 유난히

빛난다. 오른쪽: 요하네스(오른쪽 아래)와 같은 말일성도 청소년들이 사는 섬 나라의

특징을 든다면 아름다운 일몰 경지(왼쪽 위)와 용암을 덮어 쓴 이끼(오른쪽 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불과 얼음의 땅

재닛 토마스

“아이슬랜드” 하고 말해 보라. 그러면 누군가가 아마 “언제나 그 곳에 가고 싶었는데.”하고 말할 것이다. 왜 가고 싶어하는지 물어보면, 그들은 아득한 곳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한 번 어깨를 으쓱한 뒤 이렇게 응답할 것이다. “무척 흥미롭게 느껴지니까”.

흥미롭다는 말만으로는 아이슬랜드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성을 뺀 이름 순서에 따라 전화 번호부를 만드는 나라가 아이슬랜드 말고 또 어디에 있을까? 화산의 열기로 데워진 초호에서 수영할 수 있는 나라가 아이슬랜드 말고 또 있을까? 유명한 사람들, 이를테면 대통령이나 가장 인기있는 가수들조차 방해 받지 않고 손수 쇼핑하는 모습을 아이슬랜드 말고 또 어디에서 구경할 수 있을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인 16세의 울파르는 이 외에도 아이슬랜드 사람들이 누리는 좋은 장점들에 관해 몇 가지 더 알려줄 수 있다. 여름철 수개월 동안 아이슬랜드는 결코 완전히 어두워지는 법이 없다. 때문에 울파르는 원할 경우 밤낮 구분없이 온종일 농구를 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친구들과 함께 스키를 타거나 제일 높은 산에 올라 썰매를 타고 내려온다. 때로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가족이 키우고 있는 아이슬랜드 산 조랑말들을 보살피는 주기도 한다. 때로는 급수탑 꼭대기에 올라 레이카비크 시내와 각양 각색의 지붕을 한 아름다운 하얀 집들을 구경한다. 무엇보다도 특기할 만한 것은 울파르가 속해 있는 지부의 회원들은 단합심이 강하며 복음이 이 땅의 온 나라에 전파되리라는 니파이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데 공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니파이

일서14:12 참조)

아이슬랜드는 북대서양에 홀로 위치한 큰 섬나라이다. 아이슬랜드 하면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황량한 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실제로 아이슬랜드는 온통 푸르름이 가득한 나라이다. 용암이 흐른 자국과 뽕족뽕족한 산들을 둘러보면, 두꺼운 초록 용암이 땅을 뒤덮고 있다. 풀밭은 마치 보드랍고 탄력있는 두꺼운 고급 용단같다. 그러나 그 용단 밑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도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정표가 세워진 길에서 벗어나면 이끼에 가린 갈라진 틈새로 빠져 들어가 밑에 흐르는 용암에 추락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이슬랜드는 추운 지역일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땅 밑에는 용암이 거품을 뿜어대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아이슬랜드는 문자 그대로 뽕뽕 얼어붙은 거대한 빙하들이 큰 산들 사이에 놓여 있고, 수많은 활화산 위에 섬 전체가 앉아 있는 형상이다. 불과 얼음이 만나 수증기가 발생한다. 그래서 아이슬랜드는 어느 곳이든지 수증기가 깔려 있다. 모든 집들은 수증기로 난방이 되기 때문에 온 집안이 훈훈하다. 이곳에서는 따뜻한 물을 다 썼다고 야단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온수 샤워를 즐길 수 있다.

아이슬랜드는 거대한 빙산들을 이웃하며 대양에 외로이 위치해 있지만,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전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식을 늘 접하면서 산다. 우리 교회는 1851년에 아이슬랜드에 소개되었다. 두 명의 선원이 복음의 가르침을 받은 후 자청하여 침례를 받았으며, 그후 그들이 아이슬랜드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초



왼쪽: 소르베르구르(왼쪽 위) 형제는 선교사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지부의 서기로 봉사하고 있다. 아이슬랜드의 소박한

경치(오른쪽 위)에는 빙하가 녹아 흐르는 폭포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나 (왼쪽 아래)는 성전 안에 있는 것은 "마치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고 말한다. 오른쪽: 울파르는 자신의 형처럼 선교

사업을 나갈 계획을 하고 있다.

기의 미대륙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초기의 아이슬랜드 회원들 또한 그들이 가진 신앙으로 인해 온갖 박해와 고초를 겪었다. 심지어 아이슬랜드 정부가 물몬들의 침례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때도 있었다. 결국 교회의 거의 모든 회원들은 아이슬랜드를 떠나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유타 주 스페니쉬 포크에 정착했다. 그 후 아이슬랜드에서의 선교 사업과 교회 업무는 60년 동안 정지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20여 년 전, 또 다른 선원인 토르스텐 존슨이 침례 받아 수십 년 만에 첫 아이슬랜드 회원이 되었다. 곧 본격적인 선교 사업이 시작되었고 지부가 조직되었다.

아이슬랜드 국민 대부분은 루터 교에 속해 있다. 아이슬랜드의 수도 레이카비크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정표는 루터 교회의 거대한 흰색 건물이다. 길 바로 건너 편에 3층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안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여러 사무실과 집회소가 있다. 바로 이곳에서 아이슬랜드에서 가장 큰 지부의 회원들이 집회를 갖는다.

주마다 열리는 세미나리 반에 와서 레이카비크 지부의 청소년들을 만나 보라.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그들은 모두 서로 가까운 친구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회원이 되고 나서 교회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이기는데 있어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울파르는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수업 시간에 늘 의자를 기울여 벽에 기대는 전형적인 십대 소년이다. 자신이 속해 있는 농구 팀이 어느 농구 시합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자랑한다. 그는 세미나리 교사를 사랑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교사는 바로 자신의 어머니이다.

요하네스는 진지하고 조용한 성품을 지녔지만 밝은 빛이 타오르는 것 같은 간증을 갖고 있다. 그의 가족(형인 토르버거와 부모님)은 모두 그 지부의 오랜 회원이다.

세미나리 공과 반에는 이 밖에 청녀 세 사람이 더 있다. 이들 멜라니, 예룬, 한나는 모두 좋은 친구사이이다. 멜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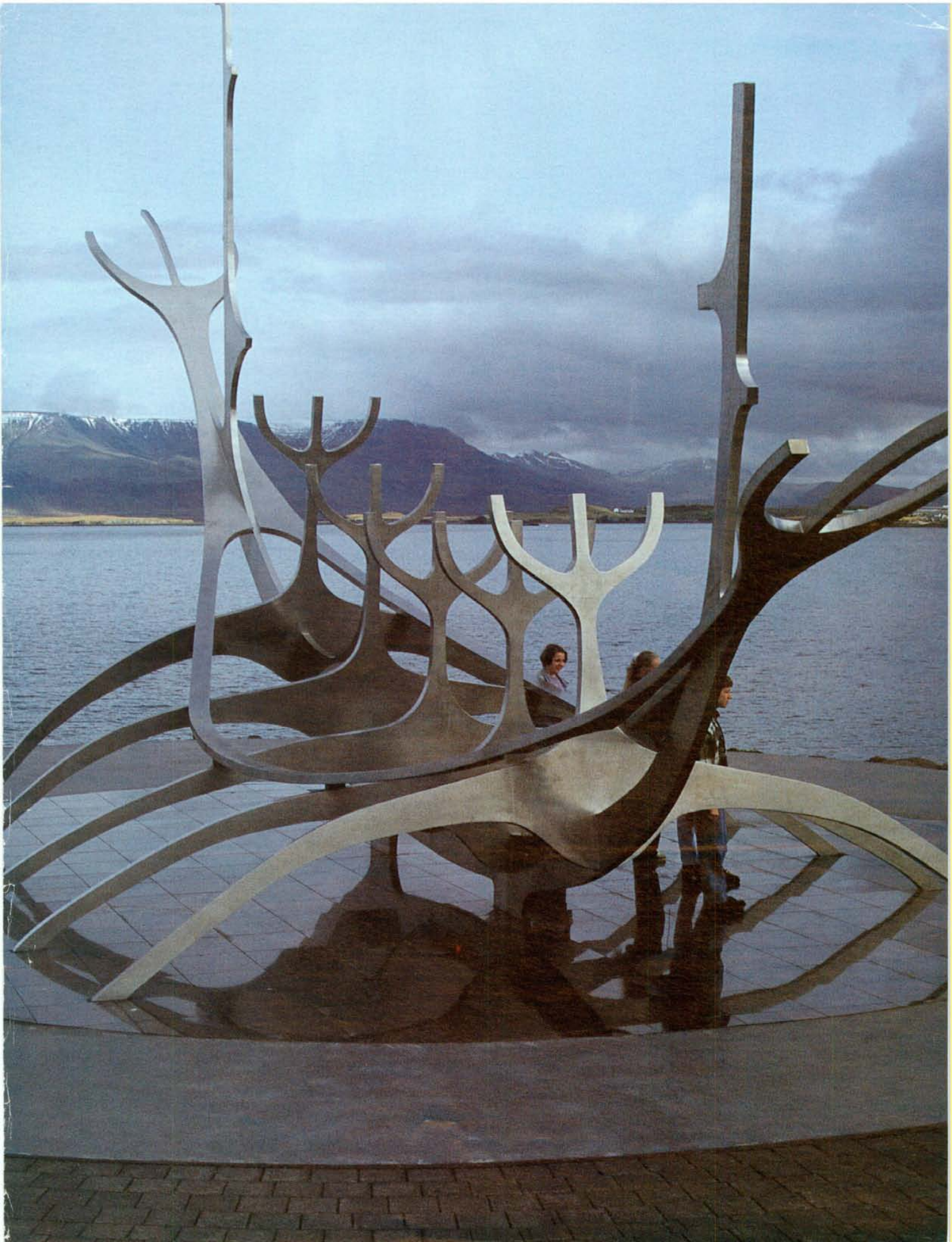
는 아름다운 눈에 긴 검은 머리를 하고 있고, 예룬은 몹시 아름다운 연한 금발 머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한나는 탄력 있는 짧은 머리에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청녀이다. 모두가 서로의 이름을 부를 만큼 아주 친밀하다.

사실, 아이슬랜드 사람들은 모두 서로의 이름을 부른다. 아이슬랜드에서는 서로 이름으로 알려진다. 성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방식을 따른다. 즉 각 사람의 성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다. 예를 들어 울파르의 아버지 이름은 '구드문드르 시구르드선'이지만 울파르의 성은 '구드문드르스선'이 되고 그의 누이들의 성은 '구드문드르도퇴르'가 된다. 그리고 울파르의 어머니인 발라의 성은 '크넛츠도퇴르'인데 이는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이 크넛트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따라 혼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슬랜드의 모든 사람은, 심지어 성인들조차도 각 개인의 이름으로 불리워진다.

울파르의 어머니인 발라가 가족이 처음 선교사들을 만났을 때 있었던 재미난 에피소드를 들려 주었다. "저는 선교사들에게 우리 애의 이름이 울파르 카우리라고 하자, 선교사들은 당혹해 하는 표정들이었어요. 우리 애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보면 마치 "울리버 카우드리"처럼 들리거든요. 선교사들은 아이슬랜드에 있는 이 가족이 어째서 교회 역사에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거지요."

다른 나라의 십대들과 마찬가지로 아이슬랜드에서도 십대가 되면 때때로 고민을 하게 된다.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관해 많은 결정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울파르는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모두들 '한잔 하러 가자. 담배 한 대 피워.' 하고 말해요. 친한 친구들마저 술을 마시러 다녀요. 친구들이 두세 번 저에게 함께 가자고 청했죠. 그때마다 저는 사양하며 때로는 화제를 바꾸었어요. 이제 그들은 그 문제에 관한 한 저에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왼쪽: 바이킹 해적선의 조각 옆에 있는 요하네스와 멜라니와

에룬과 한나. 오른쪽: 멜라니(오른쪽 위)와 에룬(오른쪽 아래)과 같은

말일성도 청소년들에게는 아이슬랜드의 무지개(왼쪽 위)도 복음의

빛보다 밝지 못하다.



어떤 파티에서 제외되면 교회 청소년들은 고심하는가? 멜라니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술마시는 파티에서 참석하고 싶지 않아요. 친구들이 그러한 파티에 가자고 청하지 않더라도 저는 개의치 않아요. 어차피 참석하기 싫으니까요. 한번은 학교에서 파티가 있었는데, 그 목적이 술마시고 노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모두들 나에게 왜 오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저 참석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대답했죠.”

교회는 아이슬랜드 청소년 회원들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멜라니는 청녀들의 모임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말한다. “우리 청녀들은 주중 활동을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알고 친구가 되는 데 도움이 되요. 그렇게 되면 저에게 의지할 데가 생기게 되요. 저는 그것이 기뻐요. 우리가 진실로 친구가 될 때 우리는 달라져요.”

울파르가 신권의 권세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는 어렸을 때 신권의 권세를 경험했다. 그가 침례 받은 후 그의 아버지와 지부장단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확인 의식을 해 주었다. 확인 의식이 끝난 후, 울파르는 그의 어머니 곁에 돌아와 앉으며 이렇게 말했다. “와! 엄마, 저분들은 권세를 갖고 계세요.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저의 온 몸에 권세가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울파르는 아버지와 최근 영국 버밍엄에서 복음 선교사 임무를 마치고 귀환한 형 프리드리크이 보여 준 신권의 모범을 따르고 있다. “저의 형은 규칙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형은 항상 규칙에 따라 생활해요.”

이 청소년 그룹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교회에 관해 가르쳐야 할 큰 임무를 안고 있다. 그들은 기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하네스는 이렇게 말한다. “친구들은 저에게 교회에 관한 질문을 해요. 물론 교회도 기독교에 속하느냐고 물어요.”

레이카비크 지부는 작년에 처음으로 성전 방문 여행을 하

였다. 가장 가까운 성전이 영국에 있기 때문에 성전 방문을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만큼 경비가 많이 드는 여행이었던 것이다. 또 최근까지도 아이슬랜드 어로 성전 의식이 진행된 적이 없었다.

한나는 성전에 갔던 경험을 이렇게 회고한다. “모두들 친절하고 따스한 느낌을 주었어요. 마치 하늘 나라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전 그 느낌을 언제나 간직하고 싶어요.”

성전에 머무는 동안 아이슬랜드 청소년들은 매일 오전과 오후 대리 침례 의식을 행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침례 받는 사람들의 이름은 그들 자신의 계보에 나오는 조상들의 이름이었다. 멜라니는 그녀가 대신 침례 받아 주고 있는 조상들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의아스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분들이 기뻐할까? 내가 여기서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 그분들이 감사하고 있을까? 그분들이 이 의식을 받아들일까? 단순히 이름을 위해 침례를 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바로 지상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분을 위해 침례를 받는 것이었죠.”

청소년들 간에 쌓인 두터운 우정이 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되었다. 이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조국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한다. 지금은 성찬식 때 집회소가 꼭 찬다. 또한 모두들 기뻐한다. 복음의 메시지는 그 나라 온 땅에 빛처럼 퍼져 가고 있다.

북극광 이야기를 빼먹은 것 같다. 해마다 가을과 겨울에는 아이슬랜드 하늘을 가득 메운 북극광을 볼 수 있다. 초록과 자주색으로 영롱한 빛들이 밤 하늘을 뒤덮으며 넘실댄다. 때로는 그 빛들이 어찌나 밝게 빛나는지 모든 사람들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지켜보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인 경우도 있다.

레이카비크 지부의 청소년들 또한 북극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신앙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친구 및 가족들과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며, 청소년으로서 보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모범을 보이고 있다. 때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그들이 하는 일을 지켜 보라. 그들은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



오스본 엔 스미스 : 원화

가장 우선인 십일조

오스본 엔 스미스

십 일조를 내야 하나? 아니면 농지 상환금을 만들어야 하나? 그것이 저의 아버지, 헨리 엘 스미스가 1920년에 당면하고 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뉴멕시코 주 버덴의 작은 말일성도 공동체에 정착했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의 부모님도 주님을 신뢰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한 해 소득이라야 곡식 몇 자루가 고작이었습니다.

많은 기도와 열심히 일한 덕으로 1920년에는 밀을 풍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밀 수요가 줄어들어 판매가가 매우 낮았습니다. 물물 교환으로 우리는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지 상환금 만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농지를 함께 구입한 가정 모두가 제날짜에 상환금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이의 재산을 뺏길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농부들처럼 저의 부모님도 수확기가 되어야 십일조를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부모님은 십일조나 농장 상환금 중 어느 하나만 낼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

니다. 아버지는 밀 몇 자루를 들고 팔러 나가셨지만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십일조는 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농지 상환금을 빼먹을 수도 없다.” 아버지는 일지에 그렇게 썼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상의드렸다. 기도를 끝내면서 우리는 십일조를 우선적으로 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아버지는 일지에, 십일조를 지불한 며칠 후에 “전에 본 적이 없는 한 남자가 와서 우리의 밀 모두를 좋은 가격에 사 갔다. 우리에게 이제 농지 상환금을 지불할 돈이 생긴 것이다.”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는지, 아버지는 그를 찾질 못했습니다. 그가 왜 것처럼 좋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지에 간단하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충실할 때 우리를 돌보아 주실 방안을 갖고 계심을 느꼈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





그분은 살아 계시다!

세계 각지의 청소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18 32년 2월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서기 시드니 리그돈과 함께 영감에 의한 성경 번역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오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읽은 뒤, 현재 우리에게 교리와 성약 76편으로 주어진 바 있는 시현을 받았다. 이 시현에 관해 그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아버지의 우편에 있는 아들의 영광을 보았고 또 그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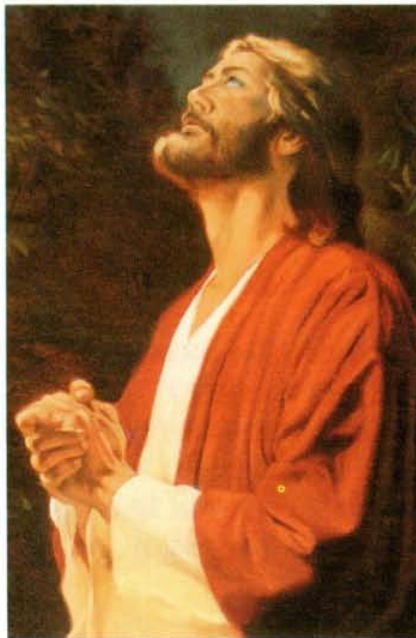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니라.(20, 22-24절)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이 생애에 있는 동안 구세주를 보지 못할 것

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권세를 통해서 그 분이 살아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교회 회원들이 그같은 간증을 하고 있다.

세계 각지의 청소년들이 전하는 가장 값진 선물인 구세주에 관한 간증을 아래에 실어 본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는 구세주의 생애에 관해 상고하며 그분이 겪으신 많은 일들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 봅니다. 저는 구세주가 살아 계시음을 알며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생활에서 곤경에 처할 때마다 구세주를 돌이켜 보며 그분께서 제 곁에 함께 서 계신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 시모네 램sey (가나 공화국 조지타운)



"1994년, 아버지의 직장 관계로 우리 가족은 어떤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저는 배척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 간증이 자람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졌습니다. 당시 제가 겪은 박해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이제 마음에 화평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구세주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로지 그분을 섬기기에 합당하기를 바라며 그분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휘만도 이스라엘 산체즈 판토야 (멕시코 셀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르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몸소 자신이 가르친 것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대를 통하여 가장 뛰어난 교사이십니다. 겸손, 용서, 순종, 충실, 거룩함, 유덕, 봉사, 사랑 등에 관한 그분의 모범 때문에 저는 더욱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내가 고독할 때나 슬플 때, 또는 좌절로 비통해 할 때, 그리스도께서 저를 옹호해 주십니다. 부모님이나 지도자나 애인의 그 어떠한 포용도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 안에 있는 것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리자 해리노우 (인도네시아, 카디피로 수라카르타)



"이 교회로 인해 나의 생활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1995년 10월에 교회 회원이 되었는데, 아직도 제가 침례 받은 순간에 경험했던 기쁨과 행복감을 온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제가 악과 유혹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신성한 힘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레나 이엘리스트라토바 (러시아, 이에카테린버그)

"몇 해 전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 전까지 축복사 축복이 왜 중요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축복문을 매일 읽고 있습니다.

저는 구세주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축복사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구세주가 계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살아 계시며 그분의 은혜로 언젠가는 영의 세계에 계신 저의 아버지와 형을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겔리 태푸투 (프랑스 폴리네시아, 타히티, 마히나)

그림: 쿵 아인리히 블로호,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 덴마크 프리드릭스보르 성의 예배당에 원화 소장. 프리드릭스보르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 게재함.



힝클리 대관장은 첫 모임에서 기도를 드리기 전에 앞서 “교회는 이제 이 성스러운 성전이 헌납됨으로써 성숙기에 들어섰습니다.”라고 말씀했다. 기도하는 중에 150여년 전에 그 지역에서 봉사했던 최초의 선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렸으며, 홍콩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배의 자유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구했다.

일곱 차례의 헌납식 모임에는 홍콩 성도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타이완, 태일랜드 및 다른 지역에서 온 수 백명의 성도들을 포함하여 5,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5월 28일, 마지막 헌납식 모임을 마친 후에 힝클리 대관장은 홍콩 접경 지역 너머에 있는 중국의 심천시에서 하루밤을 기거하였는데, 이로써 교회 대관장으로서의 처음으로 중국 본토를 방문한 대관장이 되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하와이에 있는 교회 폴리네시아 문화 센터를 통해 성사된 것으로 힝클리 대관장과 몬슨 부대관장, 맥스웰 장로, 위스틴 장로, 타이 장로 등은 “자매” 문화 센터, 중국 민속촌, 중국 여러 지역의 촌락을 축소해 놓은 “Splendid China”, 세계의 주요 명소들을 축소해 놓은 “Windows of the World” 등을 방문했다. 보도에 늘어난 500여 명이 넘는 무희들과 곡예사들이 대관장 일행을 맞이했다.

중국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힝클리 대관장은 캄보디아로 향했다. 5월 28일, 그는 메콩 강이 바라보이는 프놈 펜의 한 언덕에서 캄보디아에 선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헌납 기도를 드렸다. 힝클리 대관장과 힝클리 자매와 위스틴 장로 부부가 캄보디아에 머무는 동안, 칠십인 정원회의 아시아 지역 제2보좌인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와 그의 아내 조앤이 그들과 함께 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봉사하고 있는 복음 선교사 12명과 함께 프놈펜에 있는 한 호텔의 콘벤션 홀에서 400여 명의 회원과 구도자들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수요일인 5월 29일에는 베트남의 호치민시를 방문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예전의 기억을 되살리며 카라벨레 호텔의 옥상에서

서, 1966년 당시 월남을 선교 사업을 위해 헌납하던 일을 회상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또한 25명의 지역 교회 회원과 함께 지역 지도자의 가정을 방문했다. 그날 오후 19명의 회원이 있는 하노이 지부를 방문하였고, 교회를 위해 인도주의적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부들과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에서 온 부부들을 만났다. 하노이에서 힝클리 대관장은 예전에 드렸던 기도에 덧붙여 베트남 전역을 언급하면서 헌납 기도의 “추가”라고 명명한 기도를 드렸다.

그날 밤 늦게, 힝클리 대관장은 필리핀으로 가 마닐라와 세부에서 온 성도들과 선교사들을 만났으며, 목요일 이른 아침에, 힝클리 대관장은 전국 일간지 기자들과 기자 회견을 가졌고, 필리핀 전역에 있는 150여 개의 케이블 TV를 위한 인터뷰를 한 후 마닐라에 있는 미군 전쟁 기념 묘지를 방문했다. 그는 35년 전인 1961년 4월 28일, 바로 그 곳에서 선교 사업이 시작되도록 필리핀 섬을 헌납하는 기도를 드렸었다.

그 지역에 봉사하는 선교사들과의 모임에서 힝클리 대관장은 그 묘지를 “성별된” 곳이라고 불렀다.

“이 땅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미국인들과 필리핀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영이 이 땅을 가슴에 품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기원을 했다.

마닐라에서 힝클리 대관장은 체육 경기장을 꽉 채운 35,000여 명이 훨씬 넘는 회원들을 맞아 말씀을 전했다. 충실한 회원들은 그날 아침 일찍부터 나와 오후 7시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다.

대관장은 참여한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순수하고 유덕하라는 다음과 같은 권고의 말씀을 했다. “우리는 정직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도덕 위로 우뚝 솟아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비도덕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러운 언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을 믿으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듣

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을 남겼다.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걸으며 복음대로 생활한다면 여러분의 식탁에 먹을 것이 놓일 것이며, 여러분은 헐벗지 않을 것이며, 잠잘 곳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축복이 내리도록 축복합니다.”

그 다음날, 필리핀 퀘손 시와 필리핀 마닐라 지역의 여러 선교부 소속의 선교사들에게 말씀하는 도중에 그 모임에 대해 언급하면서 “나는 어제의 전 날 모임에 말일성도들이 가진 모임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모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고 “어제는 제 일생에서 위대한 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선교사들에게 유혹을 멀리 하라고 권고하면서 자신은 선교사들을 “이 사업의 동역자”로 여긴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나의 동역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의 영을 지니고, 신권의 권세와, 간증의 힘과,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5월 31일, 무더운 금요일 오후에 힝클리 대관장은 세부에서 9,000여 명이 훨씬 넘는 회원들을 만났다. 모임에 참석하고자 배를 타고 온 많은 회원들이 배 접속편에 맞춰 집에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날 일찍 모임이 열렸다.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가 사이판에서 연료 보급을 위해 기착한다는 것을 안 힝클리 대관장은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이며 필리핀/미크로네시아 지역 회장인 벤 비 뱅크스 장로에게 자신은 그곳에 봉사하는 선교사들과 회원들을 기꺼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하도록 부탁했다. 비행기가 연료 보급을 하는 동안 힝클리 대관장은 사이판에 있는 10명의 선교사와 60여 명의 지역 회원들을 만나는 짧은 “훌륭한 경험”을 하고 18일 간에 걸친 아시아 지역 순방과 홍콩 성전 헌납의 여정을 마쳤다.

신임 서울 성전장 및 메이트론

한인상 장로 부부

대관장단은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인 한인상 장로가 한국 서울 성전의 성전장으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발표했다. 한 장로의 부인인 이규인 자매는 성전의 메이트론으로 봉사하게 되며, 이들 부부는 오는 9월부터 이 부름을 수행하게 된다.

한 장로(56세)는 1991년에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아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하였으며 지난 2년 동안 교회 본부에서 일해 왔다.

그는 교회에서 지부장, 지방부장, 지역 대표 및 선교부장을 역임했으며, 교회의 번역출판부와 한국 관리본부의 대표로 근무하였다.

이규인 자매는 초등협회 회장, 청년 회장, 상호부조회 회장 및 상호부조회 교사로 봉사하였다. 한 장로는 이규인 자매 사이에 3남 2녀를 두고 있다.



천자춘추

삶의 질을 높이는 삼청 운동을 제창하며

최 옥 환 (전 서울 지역 대표)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린 문제는 행복한 삶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큰 목표로 대두되고 있다.

'94년 12월 제47차 유엔 총회의 결의에 따라 '95년 3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사회 개발 정상 회의는 냉전종식 후의 세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념으로서 '인간 안보' (Human Security)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인간 안보'는 과거 냉전 시대에서 중요시 되던 '국가 안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오늘날의 문제가 과거 냉전 시대의 국가간의 전쟁등 '국가 안보'에 있기보다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

들이 환경 오염, 재난, 사고 등으로 일상 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이제는 '인간 안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30~40년간 '성장 우선 주의'라는 목표 아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설대 빈곤층이 거의 사라지는 등 비록 외형적인 발전은 크게 이루어졌으나, 그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의 복지 수준이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된 상태로 남아 있는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의 수준에 있어 아직 개선의 여지가 너무 많은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21세기 세계 다변화 시대에서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이루어 가는 데 결국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으며 국민 소득 1만불을 넘어서는 우리 나라도 국민 복지 와 삶의 질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의무를 미룰 수 없는 것이다. 국가 경영 차원에서, 국가의 중요 정책 과제로 전면으로 등장시켜 강력하게 추진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말일성도들의 아름다운 노력으로 산을 맑게(山淸), 물을 맑게(水淸), 사람을 맑게(人淸)하는 삼청 운동(三淸運動)은 환경 오염을 막고 도덕성을 회복하는 운동이요, 건강하고 아름다우며 활력이 넘치는 시민으로 열심을 품고 봉사하는 국민 모두가 꼭 참여 하여야만 하는 국민 운동인 것이다. 그릇의 안은 깨끗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 집앞 대문 밖도 깨끗이 쓸어 주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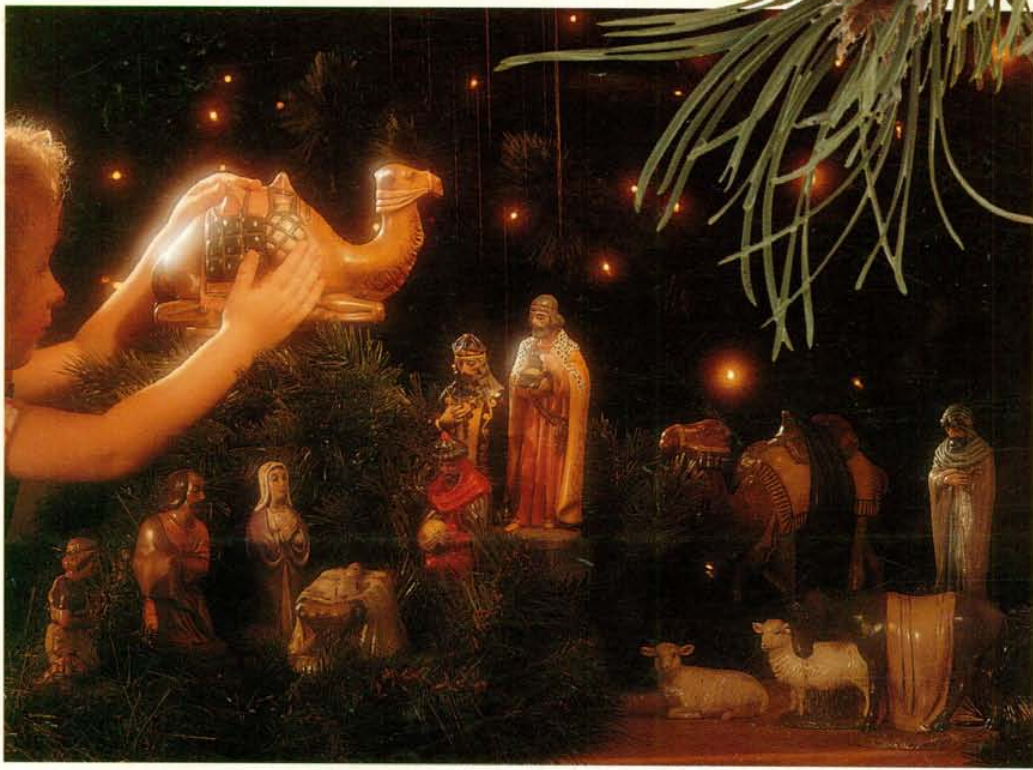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국가를 건설 하며 21세기를 여는 밑바탕은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교훈이요 사랑의 봉사 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믿는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보자!



“팔과, 볼 수 있는 눈과, 노래
부를 수 있는 목소리와,
가정과, 사랑하고 봉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회 등, 많은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전 간구할 것은
별로 없지만, 감사드릴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패트리샤 엘리자베스
바에스 코랄,
에콰도르 엘 엘리도
("그분은 살아 계시다",
34쪽 참조)



예 수님의 탄생 장면과
 성탄절 장식, 이러한
 상징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나게
 해준다. 오래 전에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6)

